

새로운 시작, 함께하는 선교!

주민호 선교사 (해외선교회 회장)

● 침례교해외선교회(FMB)의 시작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침례교단의 공식 해외선교기관으로서의 FMB 발족은 기독교한국침례회 77차 총회에서(1987.9.28.) 결의되었다. 총회 추대로 결성되었던 초대 이사회에 의해¹⁾ 유병기 목사가 초대회장으로 선임되면서(1988.5.20.) 업무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총회 차원의 해외선교회 설립 이전에 선교에 관심을 가졌던 목회자와 교회들을 중심으로 ‘한국침례교해외선교회’(1979), ‘동남아선교회’(1982), ‘중국선교회’(1985)가 이미 결성되어 있었고, 각각 사역 중이었다. 관심 지역에 따라 설립되었던 선교회는 각각의 이사회와 재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선교회들이 총회의 결정에 따라 침례교해외선교회로 기관을 통합하였으며, 기관통합과 더불어 재정 통합도 결정하였다.²⁾ 교단적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조건 없는 통합 과정을 거치며 해외선교회 창립의 밑거름이 되는 것을 기뻐했던 것이다. 놀랍지 않은가? 그 시절 선배 목회자들의 **함께하는 선교를 위한 협력과 양보, 섬김과 희생**이 돋보인다.



최근 5월에 “FMB 새로운 시즌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FMB-WMTC-SRDC 리더십 대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해외선교회(FMB) 이사장 김종식 목사, 세계선교훈련원(WMTC) 원장 유관재 목사, 전략연구개발원(SRDC) 원장 이금주 선교사, 해외선교회 회장 주민호 선교사가 패널로 참여하고, 세계선교훈련원 부원장 이병문 선교사가 사회를 보면서 진행한 FMB가 처음 시도한 대담회였다. 이날 FMB의 새로운 시즌을 해석해 준 키워드도 “**함께함**”이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2021년에 눈에 보이는 놀라운 선물을 선교 공동체인 침례교회에 허락하셨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부설기관이었던 세계선교훈련원을 해외선교회 부설기관으로 기관정리를 해 주신 것이다. 그동안은 해외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침례교 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가족처럼 보였던 것이다. 이제는 FMB 산하에 WMTC, SRDC가 다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더불어 움직이는 구조와 내용을 갖추게 되었다. 이것은 **함께하는 선교**를 감당하는 해외선교회 이사들과 동역목회자들의 **협력과 양보, 섬김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코로나 집단감염 상황이 천지를 뒤덮는 이 시대의 키워드는 연결(Connection), 그물망(Network), 협업(Collaboration)이다. 우리네 말로는 **함께함**이다. 우리 침례교해외선교회는 함께하는 선교를 추구한다. 파송교회, 후원교회, 현장 동료 선교사들, 현지인 교회들, 국제적 선교 자원과 동역자들, WMTC, SRDC, FMB 본부,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선교,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과정이요, 그것이 답이다!

1) 1988년 3월 14일자로 총회에서 추대하여 파송했던 초대 이사회의 이사들은 28명이었는데, 오관석, 한명국, 한기만, 이재순, 이덕근, 유병기, 이종갑, 최이식, 최모식, 김정곤, 장순홍, 천병준, 신철모, 이홍범, 이영한, 양선호, 전영우, 안병윤, 이경수, 양승태, 조해도, 장영심, 오배근, 헌트, 톰 다니엘, 이대복, 니타 존스, 데이비드 비숍이었다. 이들 초대 이사들은 새로 만들어진 해외선교회 정관을 인준하였으며, 그 정관에 근거하여 11명의 이사를 선임하였다. 이사로 선임되지 않은 이사들은 해외선교회의 산파 역할을 한 것으로 자신들의 공적인 역할을 마무리하였다.; 유병기, 『침례교 선교의 발자취』, (서울: 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 2014), 28.

2) 유병기, 28.



FMB 지도자 초청 대담 - FMB 새로운 시즌이 열린다!



시 간 : 2021. 5. 3(월) 오후 4:30~6:00
장 소 : 더크로스처치(서울 강남)
참석자 : 김중식 FMB 이사장, 주민호 FMB 회장,
 유관재 WMTC 원장, 이금주 SRDC 원장
사 회 : 이병문 WMTC 부원장

사회자 : 안녕하세요? 저는 WMTC 이병문 부원장입니다. 오늘 뜻깊은 FMB 지도자 초청대담에서 사회를 맡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FMB 지도자 초청대담 프로그램을 위해 포항과 대전, 일산에서 오셨고, 서울 더 크로스 처치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시작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유관재 WMTC 원장의 시작기도)



1. 간단한 자기 소개

사회자 : 오늘 네 분의 FMB 지도자들께서 오셨는데,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김중식 : 저는 포항중앙침례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가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고 있어서 선교에 참여한지는 30여년 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해외선교회 이사로 섬기다가 작년부터 이사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김중식 FMB 이사장

유관재 : 저는 성광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유관재 목사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세계선교훈련원의 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만나고, 전 세계를 마음에 품은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주민호 : 주민호 선교사입니다. 1991년도에 카자흐스탄을 섬기도록 파송 받아서 2020년까지 팀사역을 했습니다. 작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지만 해외선교회 3대 회장으로 섬기도록 하남께서 기회를 주셔서 올해 1월부터 회장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주민호 FMB 회장

이금주 : SRDC 원장 이금주 선교사입니다. 저는 1989년 인도네시아로 파송되었고, 이후에 필리핀에서 선교사 훈련 사역을 하다가 말레이시아 침신대에서 선교학을 가르쳤습니다. 2018년 6월 본부의 요청으로 전략연구개발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담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FMB와 WMTC, 그리고 SRDC가 각각 어떤 단체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호 : 우리가 FMB라고 말하는 단체는 Foreign Mission Board, 즉 '기독교한국침례회의 해외선교회'를 말합니다. 해외선교회는 1987년에 침례교 총회의 결정으로 설립되었

습니다. 1988년에 3월에 이사회가 결성되었고, 한기만 목사님이 초대 이사장으로, 유병기 목사님이 초대 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11월에 이금주 선교사님을 1호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FMB는 현재 64개국에 754명의 선교사가 주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 침례교단 공식 선교단체입니다.



유관재 WMTC 원장

유관재 : WMTC는 1994년에 설립이 되어, 27년이 됐습니다. WMTC는 선교사를 훈련하는 기관으로, 지금까지 31회 선교훈련을 통해 1,030명의 선교사들을 훈련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7대 WMTC 원장이 되었습니다.

이금주 : SRDC는 Strategy Research Development Center를 말하며, 한국말로로는 ‘선교전략연구개발원’이라고 합니다. 좀 늦었지만 우리 해외선교회의 설립 30주년 되는 2018년 8월에, 선교전략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인 SRDC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금주 SRDC 원장

2. FMB의 지도자로 임명된 소감

사회자 : 이렇게 FMB의 단체 지도자로 섬겨주신 분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FMB의 각 지도자로 임명 되셨는데 소감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회 : 이병문 WMTC 부원장

김중식 : 저는 2021년부터 이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됐는데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라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되는 마음도 있지만 맡겨 주신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 믿고 기도하면서 성심성의껏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회장님과 훌륭한 선교사님들, 이사님들이 곁에 계시니까 잘 협력해서 가야겠다는 마음입니다.

주인호 : 저는 작년 선교지에 있을 때 3대 회장 공모 광고를 보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3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2:1-3, 이사야 54:1-3, 마가복음 3:13-15입니다. 이 말씀을 연결해 볼 때 ‘FMB가 당면한 코로나

의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니 선교사와 교회들은 상황과 환경만 보고 좌지우지되지 말라.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라 하시는 곳에 가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관재 : 제가 WMTC 원장에 임명되었을 때, 제 마음에는 두 개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제가 사람 앞에 설 때가 많지만 사실 저는 앞에 나서는 걸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도 IMB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ILC처럼 ‘우리 훈련원도 FMB와 같이 가는 훈련이 될 수 있을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하나만 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주셔서 원장을 수락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FMB가 더 성숙하고 세계를 향해서 위대하게 나가도록 돕는, 좋은 훈련기관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금주 : 저는 하나님 계획 속에서 지금 원장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축구 영웅 히딩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열심히 축구를 하는데, 전략이 없어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히딩크 감독의 전략으로 한국 축구가 세계적인 축구로 도약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 선교사들도 정말 열심히 일하지만, 전략이 없어서 일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선교사들은 병사들만 있고 장교가 없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장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니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먼저 공부할 기회를 주셨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게 하셨으며, 이제 30년의 선교현장 경험을 통해서 후배 선교사들을 돕게 하셨습니다. 제가 천재적인 머리나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원장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3. 침례교 해외선교의 자랑스러운 점

“우리 선교사들은 가난이 자랑스러운 선교사입니다. 하지만 순수하고 복음에 열정적이며 현지화가 잘 된 선교사들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하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자 :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침례교 해외선교회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이금주 : 우리 침례교회는 모두 아시다시피 다른 교단의 비하면 큰 교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의 서포트 그룹이 약합니다. 우리 침례교 선교사들은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깨끗하게 보존했다가 주님이 가라는데 가서 하라는 일하는 정말 겸손하고 열심히 일하는 선교사들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자랑스롭습니다. 우리 선교사 중에 70%가 예수님이 부탁하신 대로 온 민족을 향해서 제자를 만들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전념하고 있는게 정말 자랑스롭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선교사들이 가난한 게 자랑스롭습니다. 선교지에서 부자인 선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잘 못 가기도 하는 것을 보고, 빠르게 깊은 데서 눈물을 흘리며 '가난이 복이구나! 하나님, 우리 침례교 선교사들로 인해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 적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가난한 것도 자랑스롭습니다.

김중식 : 저는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참 자랑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선교사들의 복음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회를 세워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금주 원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단은 지원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우리 선교사들은 황무지 같은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얻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자랑스러운 점을 꼽으라고 하면, 본부가 소수정예인데, 그 적은 숫자로 선교사님들을 뒷바라지를 잘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선교단체들이 견학 올 정도로 투명하게 재정운동을 잘하고 있는 것도 우리 교단 선교부의 자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관재 : 우리 침례교해외선교회 소속된 선교사들을 보면 한마디로 순수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현지화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인들과 정말 함께하며 마음을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언어도 탁월합니다. 펜워 선교사님이 한국식의 옷을 입고, 한국 스타일로 사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선교사들은 자기들의 어떤 스타일을 고집하고 있었을 때, 그렇게 사신 펜워 선교사님과 같은 침례교 정신이 우리 선교사들에게 흐르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4. 좋은 선교사

“좋은 선교사는 소명이 분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더불어 일할 수 있으며, 온전히 순종하는 참 제자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스킬보다 중요합니다.”

사회자 : 어떤 선교사가 좋은 선교사입니까? FMB의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말하자면 수십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한두 가지 가장 중요한 덕목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김중식 : 저도 선교지를 다니면서 참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선교사도 가끔 봅니다. 그런 면으로 좋은 선교사는 우선 소명이 분명한 선교사가 좋은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이 불분명하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 같아서 좋은 선교사는 무엇보다 주님의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이 현재형이니까 마음속에 복음이 늘 살아있는 사람, 불이 꺼진 사람이 아니라 불이 계속 붙어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좋은 선교사는 더불어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는 위에 관계도 있고, 옆에 관계도 있고, 아래 관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격이 건강해서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좋은 선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관재 : 이사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언제나 어디서나 침례교 해외 선교사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했으면 하는 것은 ‘시너지’입니다. 혼자 하는 거보다 함께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너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과 사람 중에서 사람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사람 때문에 결국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목회하는데 다양한 사람 품어주지 못하면 목회할 수 없듯이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해외선교회가 각개전투 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함께 더 멋진 시너지를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주민호 : 선교사가 보냄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음란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습



니다. 그런 면으로 우리는 거룩한 성령 전입니다.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드러내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세상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

사하는 영을 따라서 계속 불순종으로 가지만 보냄 받은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가족공동체를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5. FMB의 부족한 점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각개전투는 잘하지만 FMB 전체의 차원의 전략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선교사들의 수고에 비해서 지원이 빈약했습니다. 소통이 잘 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 이제부터 아픈 얘기도 좀 해보야겠습니다. 저희 FMB의 연약한 점, 즉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호 : 저는 우리가 ‘개인’을 넘어서 침례교단, 침례교회, 세계선교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를 보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침례교회는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에서 시작하고 개교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도 헌신된 개인이 선교지로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선교도 하고 싶은 사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어떤 때 선교사들의 사역보고를 읽으면서 주님의 지상명령은 잊은 채 개인의 사역만을 보고하는 것을 봅니다. 더욱이 선교사 중에는 보고조차 제대로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작년과 올해 내년 어떤 발전이 있는지,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어디까지 왔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전략마인드가 상당히 좀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 가야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 회장님 말씀은 우리 침례교 선교사들이 750명이나 되는 큰 부대를 이루었는데,

아직도 개인 소명에 의해 각개전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각개전투는 참 잘 하지만 낭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아쉽다는 말씀이지요?

유관재 : 제가 보기에 침례교해외선교회 가장 큰 문제는 보급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 ‘가난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는 보급이 잘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수년 전부터 IMB(미국 남침례교 해외선교부)와 미국 남침례교회(SBC) 리더십들과 만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협동선교(CP-Cooperation Program)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남침례교는 총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협동비를 납부합니다. 총회비는 강제적이지만 협동비는 자발적으로 자기 교회 예산의 10%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드디어 지난 크리스마스 때 미국 라티문(Lottie Moon)선교헌금처럼 우리의 CP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좋은 교회들이 함께 조그마한 눈덩이 하나를 뭉쳤어요. 이것이 앞으로 굴러가면서 점점 커질 것을 믿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헌금으로 처음으로 수억원의 모았고, 동참하겠다는 교회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보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금주 : 저는 FMB 본부를 생각하면서 본부의 조직이 좀 모호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정담당 혹은 멤버케어 담당, MK 담당을 하는 조직이나 담당자가 명확히 선정되어 있지 않아서 현장 선교사들을 효과적으로 도와주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FMB가 교회들과 그리고 선교사들과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현장에서 FMB의 이사장으로 누가 선임되었는지, 이사가 누군지 모르고, 사무실의 보직 변경을 모른다는 것이 그동안 소통이 부족했다는 의미입니다. 침례교회들과도 소통만 잘 되었다면 아무리 연약한 교회라도 만원 헌금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소통이 잘 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6. FMB의 향후 방향

“소통이 핵심입니다.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들, 목회자들의 소통과 네트워크 채널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소수정예와 전략 연구가 필요한데, SRDC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사회자 : 우리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이런 장점을 잘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FMB는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호 : 앞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이사님들과 국내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현장의 선교사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회장 서신’이라는 것을 선교사 전체에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선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선교회의 일을 실시간으로 알려서, 선교사와 교회들 사이에 소통이 되도록 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가 되어 은퇴하는 선교사를 위한 ‘은퇴감사예배’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주님 앞에 순종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남은 생애를 주님께 부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연합파송식’입니다. 이제까지 파송식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연합파송식을 하면서, 파송되는 선교사가 나의 파송교회, 후원교회 뿐 아니라 전체 침례교 가족이 선교사로 인정해주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개인의 역량에 의해서 진행되는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는 선교를 위해서 경험이 많고 열매가 있는 선교사들의 도움을 적극적 요청 하려고 합니다. 현장에 선교사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후배들을 위한 글로벌 라운드 테이블이나, 글로벌 네트워킹 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주님께 지혜를 묻고 있습니다.

김중식 : FMB의 부족한 점 두 개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지원이 좀 부족하다 하는 것’하고, 그다음은 ‘통합된 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선교의 주체가 교회니까 교회의 참여를 좀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좀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교회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선교사를 보낼 때부터 잘 준비된 사람을 보내는 것, 소수정예를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SRDC가 세워졌으니까 앞으로 역할을 좀 잘 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SRDC의 역할이 한국 FMB의 방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야의 많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7. FMB와 WMTC, SRDC 등의 기관들의 협력 방안

“침례교 선교를 끌고 가는 우리 해외선교회, 전략 세우고 연구로 도와주는 SRDC, 모집된 사람들을 훈련해서 갖추어지게 하는 WMTC가 각각이거나 경쟁 관계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한 방향으로 보고, 각자 역할을 달리해서 서로 보완하는 침례교 기관, 선교하는 가족의 기관일 것을 기대합니다.”

사회자 : 지난 주 이사회에서 WMTC와 SRDC가 FMB 산하단체로 조직 구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FMB와 손을 잡고 WMTC와 SRDC가 어떻게 함께 가는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이금주 : 이제는 혼자 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함께 팀으로 일해야 합니다. SRDC가 선교전략을 연구해야 하지만, 저는 현장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대한 전략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장을 만들어서 상호 배우고 거기에서 전략을 찾아주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면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선교전략은 ‘예수님의 전략’과 ‘바울의 전략’ 단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인본주의적인 장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30년 동안 전략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의 농사꾼으로 처음 갔을 때, 호미로 농사짓는 방법 밖에 몰랐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서 트랙터로 농사를 짓는데, 트랙터 쓸 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선교사들은 노후화됩니다. 이제 SRDC가 세워졌으니까 그 일을 하고, 필요하면 WMTC에 훈련을 의뢰하는 귀한 협력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유관재 : 우리 침례교해외선교회가 역사적인 순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고 소통하고 있는 것부터 굉장히 역사적인 일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아직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제 WMTC가 FMB 소속으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이제 FMB의 전략을 가지고 선교사들을 함께 돕게 될 것입니다. 이름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트레이닝 센터인데, IMB는 러닝 센터(Learning Center)입니다. 우리가 더 권위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권위적인 부분을 내려놓고 선교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MUT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은퇴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도움을 받는 과목들을 만들고 했는데, 앞으로는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선교사들이 존중받기 위해서 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대기도 한번 써 보고 어떤 역사적인 자료도 남기고 그럴 수 있는 곳이 선교훈련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회장님이나 이사장님도 이제 함께 하시면서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소통이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은, 아름다운 FMB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중식 : 저는 그런 면으로 WMTC, SRDC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가장 기본적으로는 유기적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해외선교회 산하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급변하는 세상에서 더 민첩하게 대응해서 교육훈련을 잘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지역교회를 위한 선교교육도 많이 좀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RDC는 선교의 상황이나 흐름에 대해 많이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그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니까 현장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또 만들어주십시오. 그래서 FMB가 한 발 앞서서 정책과 방향을 좀 제시를 해 주시면, 본부나 이사회에서 정책을 채택하고 실행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점점 현안이 되어 가고 있는 선교사 1세대가 사역을 하면서 취득한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로서의 은퇴 그리고 은퇴 이후의 재산관리를 어떻게 될 것인지 먼저 가이드를 제시하고, 권고하고... 필요하다면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은퇴 선교사들에게 한국 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지침을 연구하고 권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나와 있는데 이런 기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이드를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만성적으로 후원이 부족한 선교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본부나 이사회에 좀 넘겨주신다면 유기적 관계를 통해 해외선교회가 한 발 빨리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SRDC에게 이렇게 많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주민호 :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하나 될 때 현지 지체들이 “선교사들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떻게 사역하는지 보고 배웠다.”라고 인터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선교를 끌고 가는 우리 해외선교회, 옆에서 전략 세우고 연구로 도와주는 SRDC, 모집된 사람들을 훈련해서 갖추어지게 하는 WMTG가 각각이거나, 경쟁 관계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한 방향으로 보고, 각자 역할을 달리해서 서로 보완하는 침례교 기관, 선교하는 가족의 기관일 것을 기대합니다

8. 교회들과 FMB의 협력

“침례교회는 예수님의 DNA를 가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침례교회는 협력하고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기도해주시십시오.”

사회자 : 준비된 질문 중에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각 지역교회와 담임목사님들께 어떤 협조를 요청하시고 싶으신가요?

이금주 : 사랑하는 침례교회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만 원씩이라도 선교에 동참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선교사 선발을 하실 때 교회에서 가장 헌신 되고 좋은 성도로 인정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예배처럼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 목적이며, 주님께서 부탁하신 지상대명령입니다.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선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DNA를 가진 침례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최우선으로 하여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독교 한국침례회 교회가 엄청난 복을 받는 교회들이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유관재 :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선교역사지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 역사 가운데 윌리엄 캐리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지요. 침례교 선교회를 런던에서 만들고, 1년 후에는 런던 선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모리슨 선교사가 최초로 동양에 파송되고, 또 리빙스턴 선교사가 나옵니다. 다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모두 침례교 선교회를 통해서 나온 거지요. 나중에 그것이 미국으로 갔고, 또 한국까지 오게 됐고 했는데요. 결국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이 침례교 윌리엄 캐리의 선교열정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우리 교회도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두 번 건축을 했는데요, 첫 번째 건축을 할 때 1원 한 푼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사 파송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건축 마치고 파송할게요.”라고 기도할 때 저한테 전광석화같이 “너 교회 왜 짓는데?” 말씀하시더군요. “선교하려고요,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으니까요.” 그랬더니 “왜 지금 안 되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빛이 있는 상태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고, 거기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숙할 수 있고 귀한 열매를 맺어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로 출발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꿈을 함께 꾸십시오. 아멘

주민호 :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교의 부담을 감당해 주시는 목사님 한분 한분들께 선교사들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긴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FMB 64개국 754명의 선교사들 중에서 10년 내 70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시는 분이 1/3이나 됩니다. 15년 지나면 1/2의 선교사가 우리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탁하신 일을 완수하기 위해 교회의 청년 한 명이라도 다음 세대 사역에도 연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침례교 선교사들 중

1/3 가량이 작년과 올해에 귀국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 또 기도 모임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주셔서 현장의 이야기를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를 통해 교회와 선교사가 손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 목사님들께서 애써주시면서 지지해 주셨는데 국내 들어오는 선교사들이 목사님과 교회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또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 선교사의 질문

“보안을 요구하는 현장이 많은데 어떻게 더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할 수 있는지요?”
“FMB와 WMTC, SRDC가 함께 하는 정례적인 모임이 있는지요?”

사회자 : 이번 대답에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읽겠습니다. “아멘, 나오신 한분 한분이 정말 말씀을 잘 나누시네요. 본부와 전략연구개발원과 훈련원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한 비전을 한 비전 한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갈 것을 소망합니다.” “정말 멋있고 존경하는 분들이 교단 선교의 최선봉에 서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FMB가 정말 기대됩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 사람을 먼저 봐야 한다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좋은 선교사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분명히 하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두 개 질문이 있는데요. “소통이 회장 서신과 홈페이지로 충분할까요? 그리고 보안을 요구하는 현장이 많은데 어떻게 더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할 수 있는지 좀 대안이 있으신지요?” 누가 대답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민호 : 앞서 회장 서신 2호에서 조금 언급했었는데, 보안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과 소통하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MS에서 제공하는 ‘팀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우리 스태프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 단체인 IMB도 회장님(대표)부터해서 신임선교사까지 다 그걸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안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우리에게 맞게끔 권역 각 지부 각 나라 권역 선교사들을 다 지금 엮어서 이제 하려고 올 초부터 준비했습니다. 우선 몇 개 지부에 시범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전 지부로 전 선교사에게 실시될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소통이 되고 팀 단위와 필요한 모든 부서 부서로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툴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또 이렇게 피드백 주시면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부 회장님과 전략연구개발원 원장님, 선교훈련원장님이 한 곳에 모여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 구체화하는 정기적인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입니다. “이런 오늘 역사 이래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정례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이금주 : FMB와 WMTC, SRDC가 수시로 모여서 의논하라 그 소리이지요?

주민호 : 여기 FMB 회장, WMTC 원장님과 부원장님, SRDC 원장님 계시고 우리 이사장님 계십니다. 목회까지 감당하시는 아주 바쁘신 두 분 목사님들이 시간이 되실 때 필요한 이슈를 가지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현장 선교사님들한테도 큰 격려가 되리라고 봅니다.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가운데 또 살아 계신 역사이신 전 임회장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과 자주 만나 질문해 보면 현장에 있을 때 생각지 못했던, 역사를 관통해 왔던 지혜가 번뜩입니다. 그런 분들과의 대화 기회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선교사들을 한국교회가 기억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으며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힘내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주님 붙잡고 함께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회자 :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와 관계없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드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고,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 코로나, 교회의 마이너스 성장,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적대감 등으로 지금 한국교회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가 그분과 깊은 관계 속에서 지낸다면 어려움 없이 이 상황들을 지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더 많

은 교회가 선교에 참여하도록 동원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을 잘 타고 사역의 방향을 잘 맞춰 가도록 SRDC에서도 많이 역할을 해 주시고, 또 모든 지도자들이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희망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관재 :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사장님과 회장님이 너무 귀한 분들이 뿔뿔히 일을 하시기 때문에 침례교해외선교회의 내일이 멋지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저희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왜 우리가 예배당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를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공동체성을 위해서입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예배가 잘 되는 교회 보면 좋은 방송 시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도 조그만 스튜디오 하나를 만들어서 사람들 초청하여 전 세계에서는 선교사님들이 들을 수 있는 방송을 하면은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건의를 하고, 댓글 창을 열어 놓으면 수시로 소통이 되니까 나중에는 더 좋은 것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대화한 내용이 해외선교회 잡지 ‘미시오데이’에 수록되어 나오게 될 겁니다. 침례교 모든 목사님께서도 배포가 될 거고 할 텐데, 우리가 더 자주 전 세계 선교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금주 : SRDC가 열심히 여러분들 돕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SRDC는 조연이고, 여러분들이 주연입니다. SRDC의 6명에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권역별로 담당을 주었어요. 그분들은 각자 현장에서 선교를 잘했던 분들이고, 공부도 해서 박사학위를 가졌거나 준비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제가 이제는 물러나더라도 후배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원들은 훌륭한 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있는 기구입니다. 저희도 홈페이지 있어요. 들어와 보세요. srdc.fmb.com입니다. 열심히 돕겠습니다. 기도해주십시오.

주민호 : 제가 회장이 되고 이사님들 뵈었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목회도 참 잘하시고 침례교 해외선교회가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는 거 자체가 큰 기쁨이고 특권이었습니다. 더불어 이제 또 하나 축복으로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우리 현장 선교사들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분부하신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한국교회가 기억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기도합니다. 계속 힘내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주님 붙잡고 함께 걸어가 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회자 : 장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 원래 이 시간은 FMB 선교소식지 ‘미시오데이’ 수록될 대담 프로그램을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 점점 이야기가 커졌습니다. 참석자들도 많아지고, 영상으로도 만들고, 결국 실황 중계도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대담에 참석하신 분 중에는 유튜브 실황 중계가 되는지 오늘 와서 아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렬결에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큰 걸음을 걷게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종식 이사장님, 유관재 원장님, 주민호 회장님, 이금주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식 이사장님께서 기도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이사장의 기도로 마칩니다.)





시니어 연령층을 위한 황금기선교사훈련



세계선교훈련원 (WMTC)
이병문 부원장 (선교학박사 D. Miss.)

들어가는 말

존경 받는 목회자이었던 S선교사(목사)는 65세에 담임목사를 은퇴하였지만, 아직 더 사역하기 원했고, 특히 평소에 꿈꾸던 선교사가 되기 원했다. 그래서 교단선교부에 정식 선교사로 지원했으며, 젊은이들과 함께 선교사훈련을 받아 많은 목사들과 선교사들의 모범이 되었다. 마침 선교지 한인교회 담임목사의 안식년 공백을 채우는 사역이 연결되어서 꿈꾸던 선교지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다. 현지 한인교회도 목회 경험 많은 S선교사가 온 것을 환영했다. 한국에 지인이 많았던 S선교사는 현지 교회를 지어주기도 하고, 현지 신학교에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사역에도 동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약속된 1년이 지난 후에 S선교사는 한인교회를 계속 담임하기 원했고, 그 과정에서 전임자와의 마찰이 발생했다. 마침 다른 한인교회의 자리가 나서 황급히 그곳으로 이임하게 되었지만 모두가 섭섭해 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얼마 안 되어 S선교사는 암을 얻어 급히 귀국하게 되었고, 선교사로 나간지 3년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존경 받는 S선교사의 황금기(시니어)선교사 파송은 모두의 축복과 귀감이 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인품이 좋은 S목사도 선교지에서 마찰이 있었고, 더구나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황금기선교사의 길이 쉽지 않구나!'하는 탄식을 하게 한다. 실제로 황금기선

교사와 동역했던 선교사들의 경험을 들으면 긍정적인 사례 못지않게 부정적 사례도 많이 보고된다. 역사가 짧은 '황금기선교사' 제도는 여러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앞의 S선교사의 사례나 다른 선교지의 소식을 들으면서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황금기선교사'는 이제 열리고 있는 '블루오션' 영역으로 앞으로 무궁무진한 선교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연구가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능성과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황금기선교사'의 가치와 특성이 무엇이며, 선교에 귀중한 동참이 일어나기 위해 어떻게 준비시켜야 하는지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FMB(침례교 해외선교회)와 WMTC(세계선교훈련원)의 입장에서 이 황금기선교사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려고 한다.

I. 황금기선교사는 누구인가?

1. 호칭의 문제

'시니어(Senior)'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연장자', 또는 '선임자, 선배'¹⁾, 혹은 '은퇴자'를 의미한다. 그런 면으로 '시니어선교사(Senior Missionary)'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첫째는 선교지에서 경력이 쌓인 선교사를 말할 수 있고, 둘째는 비교적 높은 연령에 선교지로 파송되는 선교사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선교지에서는 '시니어선교사'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의 혼란이 있다. 이에 대해 이현모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현재 선교지에서 흔히 말하는 시니어 선교사란 선임 선교사를 가리킨다. 그러나 '시니어(senior)'라는 말이 원래 '연장자', '어른', '손윗사람' 등 연배가 높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염두해 둘 때, 인생 선배라는 점에서 '실버 선교사'를 '시니어 선교사'라고 바꿔 부르는 것을 제안한 바다.²⁾

침례교해외선교회(FMB)는 2020년 7월 내규 개정 전까지 '실버선교사'라는 제도가 있었다.³⁾ 이는 당시 내규 상 선교사의 정년이 65세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선교지에 남아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를 실버선교사로 분류하면서, 65세 이후에 처음 파송되는 선교사까지 '실버선교사'로 호칭하게 되었다. 하지만 '실버선교사'라는 호칭은 어감 상 널리 통

1) 민중서림 편집국, "Senior," 『FMB 2017.』, 2017.

2) 이현모, 『인생의 후반전은 시니어 선교』 (서울: 조이 선교회, 2007), 13.

3) 2020. 7 개정 이전의 FMB 내규 - 제18조 정년과 퇴직

1항 정년은 만 65세로 하고 그 이후로는 실버선교사로 호칭하며 5년마다 인선위원회에서 면접 심사하여 퇴직연환을 허락할 수 있다.(MUT 연장훈련 필수)

2항 퇴직하는 선교사는 본회의 결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항 실버선교사의 정년은 남편 선교사를 기준으로 만 75세로 한다.

용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미국의 SON Ministries & GMAN(대표 김정환 선교사)는 북미주한인교회들을 동원하여 고연령의 선교사 동원을 위한 사역을 위해 ‘황금기선교사(Golden Missionary)’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⁴⁾ 그들은 황금기선교사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⁵⁾

황금기선교사 명칭은 일반적으로 실버라는 명칭을 황금이라고 호칭을 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성숙한 기간이 60세 이후입니다. 이때는 그동안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가장 높은 시기 이고 또한 신앙적으로도 오래 신앙생활을 한분들일 경우 영적인 성숙도가 높은 시기 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황금기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미국 사회에서의 개념은 실버라는 개념은 “2등 시민”의 사회개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GMAN에서는 실버라는 표현대신 ‘황금기선교사’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침례교해외선교회(FMB)에서도 시니어선교사에 대한 용어 상 혼란을 피하고, 고연령 파송 선교사를 존중하고 장려하기 위해 ‘황금기선교사’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선교 현장에서 수십년의 경력이 쌓인 ‘시니어선교사’와 구분하는 적절한 시도이다. 특히 2021년 6-7월 WMTC(세계선교훈련)에서 처음 시도된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훈련을 ‘황금기선교사훈련’으로 개칭하면서, ‘황금기선교사’라는 호칭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⁶⁾

2. 황금기선교사의 사례와 정의

한국에 시니어선교에 대해서 소개된 것은 2007년 “제1회 시니어선교한국 대회”에서부터였다.⁷⁾ 이 대회에서 4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700여명의 주의 일꾼들이 참석하여 하나님의 선교적 부르심에 응답하였다. 대회 마지막 날에 작성한 선언문에서 “우리는 2007년을 한국 시니어 선교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아”처럼 이 대회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니어 영역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⁸⁾ 그곳에서는 시니어선교사의 연령폭을 40~80세로 보았는데, 이는 너무 폭이 넓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미 파송 시 선교사 평균연령이 40대에 이른 지금 황금기선교사를 40~80세로 본다면 파송되는 선교사의 절반 이상을 시니

4) <http://www.christianvision.net/7084>

5) <http://gman.university/gallery/>

6) 하지만 아직 ‘황금기선교사’의 호칭이 일반화되지 않은 관계로 ‘시니어선교사’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두 개의 용어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7) 최철희, 『인생의 이모작 시니어 선교』, (서울:쿰란출판사, 2013), 21-22

8) 정은경, “타문화권 선교 이해관점에서 본 시니어 선교”, 한국 선교 KMQ 68호, 2018, 58.

어선교사로 구분해야 하는 모순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⁹⁾

침례교단의 대형교회인 지구촌교회는 자체적으로 GSM(Global Silver Missionary)라는 시니어선교사 제도를 가지고 있다.¹⁰⁾ 이는 은퇴 후 선교사역에 참여하는 평신도 선교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만 51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교회 목자로서 1년 이상 평신도 사역자로 사역한 자이며, 건강한 자로 국내외의 공인된 선교훈련기관의 훈련을 수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GSM선교사로 파송하는 제도이다.

침례교해외선교회(FMB)는 2020년 내규 개정 전까지 ‘실버선교사’라는 제도가 있었다. 실버선교사는 65세 이상의 선교사 중 건강하고, MUT(Missionary Upgrade Training)훈련을 수료한 선교사를 파송교회의 동의를 얻어 75세까지 계속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었다.¹¹⁾ 이는 선교지의 선교사가 65세가 되었더라도 매우 건강한데 언어에 탁월하고 많은 경력을 가진 선교사들을 은퇴하게 하는 것이 낭비라는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이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65세 이후에 선교지에 파송되는 신입선교사도 ‘실버선교사’ 분류하게 되었다.¹²⁾

많은 논란과 사례를 종합하여 볼 때, 황금기선교사의 연령 구분에서 50세는 아직 젊고, 은퇴하기에도 애매한 연령이므로 황금기 선교사의 구분 연령으로는 이르다고 생각되므로 본 연구논문에서는 연령 구분을 55세부터로 하려고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하는 ‘**황금기 선교사는 직장이나 목회현장에서 은퇴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자녀 양육의 부담이 없이 타문화권 선교지에 파송되는 55세 이상의 선교사**’로 규정하려고 한다.

3. 황금기선교사의 등장과 중요성

황금기선교사는 다음 다섯 가지 이유로 생겨나게 되었다.

첫째는 한국 인구의 고령화 때문이다.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¹³⁾에 진입한 이후 17년 만인 2017년 9월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이처럼 의학, 과학의 발달로 인한 수명 연장 과 저 출산으로 인해 고령 인구는 더욱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¹⁴⁾ 2018년에 발표한 통계 자료를 참고하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82.7세(여성 85.7세, 남성 79.7세)이며 지난 10년 동안에도 3년 정도 증가했다.¹⁵⁾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늘어난 반면에 직장인들의 평균 은퇴

9) 이병문, “새로운 선교상황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선교사훈련”, 미시오데이 77호, 2019.12. 44, WMTC 2016-2019년 선교사훈련생의 평균연령은 이미 41.9세에 이르렀다.

10) 지구촌교회, “지구촌 GSM-시니어 선교사 모집과 관리” 계획

11) 침례교해외선교회 업무내규, 이 내규는 2020년 7월 9일 이사회에서 개정되어 ‘실버선교사’라는 제도가 없어지고 선교사의 정년을 70세까지로 연장하였다(18조).

12) <http://gman.university/gallery/>

13) 한 나라의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 인구 대비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가 넘으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한다.

14) 김영동, “시니어 선교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신학적 방향”, 선교와 신학 vol.32, 2013, 46.

15) 국가지표 체계,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035> (접속일: 10월 27일)

연령은 53세에 불과하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은퇴 후에도 15-20년은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고령화는 은퇴 후 의미 있는 일을 찾도록 자극하게 되었다.

둘째, 젊은 선교자원의 부족 때문이다. 먼저 청년층의 인구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했으며, 특히 젊은층의 기독교에 대한 호감과 헌신이 감소하면서 선교사 자원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영향으로 선교사의 지원자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셋째, 선교지에서 사회의 경험 많은 선교사들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교의 문이 닫히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선교사가 비자를 받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해외선교는 텐트메이커나 전문인선교 등의 방법으로 그런 제약을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회 경험이 많은 황금기선교사들에 선교지에 필요하게 된 것이다.

넷째, 많은 선교사 파송에 대한 한국교회의 피로감 때문이다. 한국에 6만개 교회가 있다 하지만 절대다수가 연약한 소형교회인데, 한국교회가 3만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으니 힘에 부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런 이유로 교회는 부담이 적은 선교사를 찾고 있다. 연금 수령, 자녀의 장성 등으로 재정 부담이 적은 황금기선교사가 환영 받는 이유이다.

다섯째, 황금기의 신앙의 열정 때문이다. 60세를 전후한 베이비붐 세대는 가난한 시절에 태어나서 경제발전과 민주화,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맞본 세대이다. 그들은 선교에 동참하기를 누구보다 원했지만 사회적 여건 상 선교에 동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눌러놓았던 선교에 대한 꿈을 펼칠 꿈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선교지의 악조건을 잘 견디어낼 수 있는 좋은 선교의 자원이 된다.

황금기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절실히 필요하고, 한국에는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는 비즈니스 용어로 이야기 하면 수요와 공급 양면이 충족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¹⁶⁾

4. 황금기 선교사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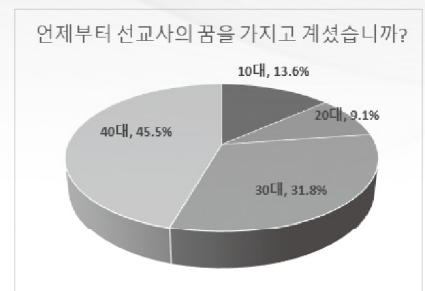
황금기선교사의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긍정적 요인을 보았으니 선교지에서 정말 그렇게 살고 사역하고 있는지는 실태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 지난 2021년 3월 FMB 소속의 선교사를 대상으로 3개 통로로 황금기선교사에 대한 의식과 경험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⁷⁾

16) 최철희, "시니어 선교사의 강점, 약점 및 선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 한국 선교 KMQ 68호, 2018, 53.

17) WMTCC에서는 2021년 3월 세 가지의 '황금기(시니어)선교사'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① FMB 소속 선교사 중 사실상 황금기(시니어)선교사에 해당되는 선교사(50세 이후에 파송되어 선교지에 10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 23가정(unit)을 대상으로 28개 문항의 설문 조사 ② FMB 소속 지부장 19명(전원이 20년 이상이며, 선교지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경험 많은 선교)을 대상으로 21개 문항의 설문조사 ③ FMB 소속으로 50세 이후에 파송된 6가정의 선교사에 대한 인터뷰(ZOOM으로 진행) 설문조사에 대한 자세한 연구 분석이 '미시오데이' 본 호에 게재되었으며(연구자 김사량), 본 연구에는 3가지 조사의 요약만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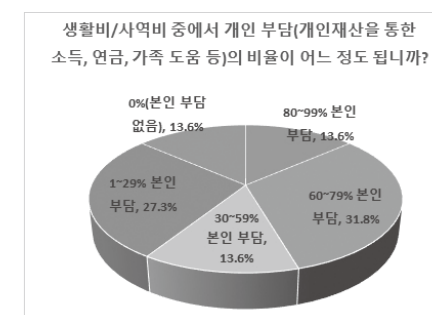
첫째, 황금기선교사는 40대에 선교사의 꿈(소명)을 받은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46%이며, 선교사 결심의 결정적 계기는 '선교지 방문'(30%)이 가장 많으나, 이외 여러 다양한 선교적 접촉을 통해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둘째, 황금기선교사가 파송된 직후에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재정부족(47.8%)이 지적되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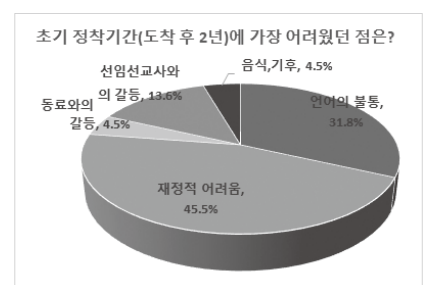
것은 매우 의외의 결과였으며, 두 번째는 어려움은 언어의 불통(30%)이었다.

셋째, 황금기선교사의 재정 중 본인부담은 평균 58%였으며(본인 부담 30% 미만 39%, 30~80% 48%, 80% 이상 13%), 대부분은 파송교회가 생활비/사역비의 30% 미만을 부담하고 있었다. 대략 보면 본인이 60%, 파송교회가 20%, 기타 20%를 부담하고 있었다.



넷째, 황금기선교사가 사역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48%)로 꼽아, 언어는 황금기선교사에게 가장 큰 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사역 능력/경험 부족(22%), 동료/현지인과 갈등(22%)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과거경력 중 가장 도움 되는 것은 압도적으로 교회사역 경험(선교단체, 군종 등 경험 포함 69%)이었고, 직장(17%), 전문지식/학위(9%), 사업(4%)으로, 한국의 사역경험이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다섯째, 언어에 대해서는 설교/성경공부가 가능(48%), 자유대화 가능(22%)이라고 대답했으나, 희망 수준은 설교/성경공부 가능(35%), 자유대화 가능(48%)으로 현재보다 더 낮은 목표를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지부장의 응답은 황금기선교사 중 11%만 설교/성경공부가 가능하다고 답하여, 황금기선교사가 자신의 언어수준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아울러 지부장들은 황금기선교사의 희망 언어 수준에서도 설교/성경공부 가능(16%), 준비된 발표 가능(26%), 일상대화 가능(42%)으로 더 낮은 기준을 제시하여 황금기선교사의 언어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황금기선교사가 언어를 공부하면서 언어가 빨리 늘지 않음(65%), 좋은 학교/선생이 없음(17%)을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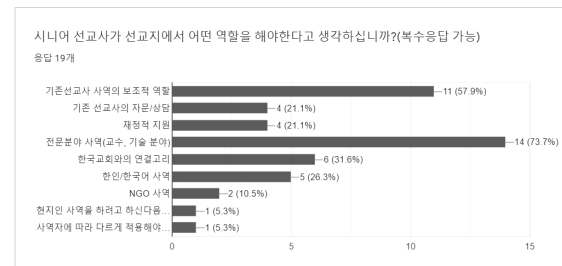


를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아울러 지부장들은 황금기선교사의 희망 언어 수준에서도 설교/성경공부 가능(16%), 준비된 발표 가능(26%), 일상대화 가능(42%)으로 더 낮은 기준을 제시하여 황금기선교사의 언어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황금기선교사가 언어를 공부하면서 언어가 빨리 늘지 않음(65%), 좋은 학교/선생이 없음(17%)을 어

려움으로 꼽았다.

여섯째, 황금기선교사의 인간관계는 내면적인 문제라서 설문으로는 파악하기 다소 어려웠으나, 사역 중에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은 사역을 같이 하는 팀장, 팀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 자신의 경험으로 선임을 가르치려 함, 대접받거나 노년을 즐기려 하는 태도, 언어가 부족한데 중요한 일을 하기 원함 등으로 지적되었다.

일곱째, 현장에서 바라는 황금기선교사의 역할은 전문분야 사역(교수, 기술 분야) 74%, 기존선교사의 보조적 사역 58%, 한국교회와의 연결 32% 이었다. 이는 ‘앞서지 않고 선교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원하는 것이다. 또한 황금기선교사에게 요구되는 경험/경력에서도 전문직(의사, 교사, 기술자) 53%, 전문사역자(찬양, 교육 등) 16% 및 목회 11%를 들고 있다.



여덟째, 황금기선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무난함, 푸근함, 사교성, 순종적, 다정함 등이었으며, 좋은 황금기선교사의 모델은 ‘**풍부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배려하며 잘 섬기는 선교사, 한계를 인정하고 앞서려고 하지 않는 선교사**’라고 볼 수 있다.

아홉째, 황금기선교사가 확대될 것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음. 지부장들은 황금기선교사와 동역을 적극 희망(26%), 조건이 맞으면 희망(42%)으로 원치 않음(26%)보다 월등히 높았다.

II. 선교자원으로서의 황금기선교사

1. 황금기선교사의 5가지 유형

앞서 황금기선교사를 구분하는 것은 나이(55세 이상)이었지만, 그것만이 황금기선교사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실제 선교지에서는 이들의 경력과 배경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금기 선교사들도 경력에 따라 분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경력에 따라 다음과 같은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보았다.

- ① 은퇴목사 선교사/ 한국에서 목회사역을 은퇴하고 선교지로 파송되는 황금기 선교사로서 선교사들의 멘토 혹은 한인교회 목회 사역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러나 현장 선교사들보다 선배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젊은 현장 선교사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

- ② 전문인조기은퇴 선교사/ 교사, 의사 및 전문 직업인으로 50대에 조기 은퇴하고 파송되는 황금기 선교사를 말한다. 이 경우는 전문성을 살린 플랫폼 형성, 사역 기간, 재정적 안정성이라는 면에서 매우 좋은 황금기 선교사의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단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한국의 좋은 배경을 내려놓고 헌신할 선교사가 흔치는 않다.
- ③ 전문인은퇴 선교사/ 교사, 의사 및 전문 직업인으로서 60대 정년퇴임 후 선교지로 파송되는 황금기 선교사이다. 이 경우는 전문성을 살린 플랫폼 형성, 재정적 안정성이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사역의 기간이 짧고, 현지 선교사와의 위치 설정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동원하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일반 조기은퇴 선교사/ 일반 직장인이나 주부 출신으로 50대에 선교지로 가는 황금기 선교사를 말한다. 사실상 조금 늦게 파송되는 장단기 선교사에 해당하므로 일반 선교사의 장단점을 그대로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일반 선교사처럼 사역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일반 은퇴 선교사/ 일반 직장인이나 주부 출신의 선교사로서 60대에 파송되는 경우이다. 재정적이 안정되고 열정적이나 언어습득과 건강에 취약점이 있다. 특히 전문분야가 없으므로 선교지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정체성이 혼란해지거나 리더십과 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2. 황금기 선교사의 장점

황금기선교사는 선교사의 한 종류로서 아래와 같은 장점을 가지게 된다.

첫째, 신앙적으로 견실하다. 황금기 선교사는 오랜 기간 교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고 봉사의 경험이 많으며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편이다. 젊은 선교사처럼 개척 정신이나 역동성에서는 뒤질 수 있지만 젊은이보다 과욕이나 시행착오에 빠질 가능성이 적다.¹⁸⁾

둘째, 교회 개척과 부흥의 산증인이다. 한국의 시니어 연령층은 급격한 경제성장 뿐 아니라 교회의 부흥 시대를 살아온 증인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적 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세계선교의 동력이 되어왔다. 교회의 부흥 시대를 체험한 이들은 세계 어디에서든 한국교회에 부여주신 성령의 은사와 축복을 증거하고 나누는데 일조할 수 있다.¹⁹⁾

셋째, 대인관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젊은 선교사들은 인생경험과 사회생활의 연륜 부족으로 대인관계가 미숙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동료 선교사의 갈등은 중도탈락의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황금기선교사는 오랜 사회경험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경험과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선교지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

18) 김영동, “시니어 선교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신학적 방향,” 선교와 신학 32집 2013, 55

19) 최철희, “시니어 선교의 문제점 극복과 활성화 방안,” 『한국선교(KMQ)』 vol.10, 2011 여름호, 138.

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자녀양육의 부담이 없다. 젊은 선교사들은 자녀 출산과 양육에 많은 시간과 힘과 재정을 쏟아야 한다. 이에 비해 황금기 선교사는 자녀 양육부담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힘과 시간을 사역에 더 투자할 수 있다.

다섯째,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황금기 선교사들은 은퇴 후 연금이나 퇴직금 등을 이용하여 생활할 수 있다. 또한 황금기 선교사들이 후원 모금하더라도 폭넓은 인간관계 덕분에 모금을 더 잘 할 수도 있고, 오랜 교회생활의 경험으로 후원 모금에도 유리할 수 있다. 오히려 황금기 선교사들은 자녀양육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현지의 재정적 부담도 적다.²⁰⁾

여섯째, 즐겁게 선교에 참여한다. 대개 황금기 선교사는 오랫동안 선교에 동참하기를 갈망한 경우가 많아서 즐겁게 사역에 임한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견딘다. 특히 시니어 세대들은 어려운 시기를 겪은 세대라서 선교지의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²¹⁾

일곱째, 다양한 경험, 지식, 전문성을 선교에 활용할 수 있다. 황금기 선교사는 한국사회의 격동기를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 그들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비즈니스 선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전문성으로 젊은 선교사와 협력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²²⁾

2. 황금기 선교사의 한계점

하지만 황금기선교사에게도 여러 한계점이 있다.

첫째,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다. 황금기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있는 기간은 주로 60대, 70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건강의 문제가 따른다. 이 때문에 황금기선교사는 건강 문제로 예상치 않은 사역의 중단이 올 수도 있다.

둘째, 선교사역의 기간이 너무 짧다. 황금기선교사는 장기선교사라 할지라도 대략 10년 정도 사역하고 귀국하는 것이 현실적인 기대이다. 더욱이 적응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는 측면만을 본다면 비효율적인 선교사이다. 하지만 재정적 부담이 적고 다양한 장점이 있으므로 '10년짜리 장기선교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동원하고 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현지 언어 습득에 어려움이 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언어습득을 의욕적으로 시작하지만 곧 지치고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현지에서 언어를 습득하지 못하면 통역을 통해 사역을 할 수 밖에 없어서

20) 이현모, 『인생의 후반전은 시니어 선교사로』, (서울: 조이선교회, 2007), 61.

21) 김영동, “시니어 선교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신학적 방향,” 선교와 신학 32집 2013. 57.

22) ibid. 59.

현지에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킨다. 또한 더 좋은 대우로 현지인 사역자를 빼내가기, 가진 재물을 통한 물량주의 선교, 현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 프로젝트 선교, 매년 사역의 내용과 방향이 바뀌는 '좌충우돌 선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²³⁾

넷째, 선교지에서 협력과 화합의 문제가 있다. 나이가 들면 자신도 모르게 다섯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이는 의심, 호기심, 조바심, 고집, 노여움이다. 노인이 되면 이러한 경향들이 더 심해져서 쉽게 의심하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여 그 해석을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래서 노인이 될수록 쉽게 오해하거나 서운해 한다. 노인들이 호기심이 많아 모든 일에 간섭하려고 하고 조바심도 많아서 매사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나이드는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는 완고함이다. 나이가 들수록 수용하는 폭이 넓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점점 완고해져서 자기 생각을 변화하려고 하지 않거나 남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한다.²⁴⁾ 황금기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경험과 연륜을 가졌지만 선교지의 경험은 부족하다. 따라서 선교지에서 자신보다 젊은 선임 선교사들의 지도를 받아야 할 경우가 많은데, 장유유서(長幼有序)의 문화에 길들여진 황금기들은 자신이 대우를 받기를 원하거나 자기 의견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젊은 선교사들과 협력과 화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²⁵⁾ 바로 이러한 부분이 황금기 선교사 사역의 핵심적인 난관이다. 황금기 선교사들은 좀 더 겸손한 자세를 배우고, 젊은 선교사들은 황금기 선교사들의 삶의 경륜과 다양한 사회경험들을 존중하는 자세로 서로 협력한다면, 선교지에서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 선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장단점의 요약

앞서 살펴본 황금기선교사의 장단점 중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황금기선교사의 강점/약점의 핵심〉

	강 점	약 점
핵심	1. 재정의 부담이 적다.(자신, 교회에 대해) 2. 자녀 양육의 부담이 적다. 3. 사회적 전문적 경험이 많다.	1. 건강의 한계가 있다. 2. 언어 습득이 늦다. 3. 완고함으로 변화하기 어렵다.
일반	4. 한국 사역의 경험이 많다. 5. 믿음이 견고하고 순수하게 헌신한다. 6. 한국에 발이 넓다. 7.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진다.	4. 사역기간이 짧다. 5. 조급하게 사역을 추진한다. 6. 어른으로 대접 받으려 한다. 7. 파송단체/교회와 협력이 어렵다. 8. 적합한 선교지를 찾기 어렵다.

23) 소영섭, “선교단체와 시니어 선교”, KMQ 68호, 2018. 14.

24) 이현모, 『인생의 후반전은 시니어 선교사로』, (서울: 조이선교회, 2007), 72.

25) 소영섭, “선교단체와 시니어 선교”, KMQ 68호, 2018. 15.

4. 황금기선교사 훈련의 중요성

이처럼 황금기선교사는 가능성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가능성만 보고 달려가면 돈키호테처럼 많은 문제를 야기하지만, 한계점만 보고 시도하지 않으면 큰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에 대해 성경도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잠언 14:4)”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황금기선교사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한다면 황금기선교사는 선교의 재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해야하는 것이 선교사훈련이다. 특히 황금기 선교자원에 특화된 ‘황금기선교사 훈련’의 필요성이 생긴다.

황금기선교사는 연령이 높을 뿐이지 사실상 장기선교사에 속하므로, 장기/신임선교사 훈련에 근거하되, 고연령의 특성과 한계를 인식하고 준비하는 훈련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황금기선교사들도 동일한 해외선교사이기 때문에 젊은 선교사들과 동일한 문제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황금기 선교사들도 타문화 선교의 이해와 적응, 인간관계와 사역 기술 등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사역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훈련기간을 짧게 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장기 선교사들과 동일한 항목의 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황금기 선교사들은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나 더욱 강조할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많은 경험과 다양한 전문성을 잘 살려서 팀워크를 잘 이루는 것을 배워야 하고, 지나치게 주도하려고 하는 자세를 경계하도록 훈련해야 한다.²⁶⁾

III. 황금기선교사 훈련²⁷⁾

1. 선교지에서 황금기선교사가 할 역할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가정해야 할 것이 ‘황금기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그에 따라 훈련의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물론 황금기선교사도 아무 기반이 없는 곳에서 개척하는 사역을 하거나, 팀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선교지의 기존팀과 협력하는 사역을 할 가능성이 많다. 선교지에서 황금기선교사가 감당할 사역은 다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플랫폼 구축 사역이다. 이는 선교팀의 계단을 마련해줌으로서 선교팀이 존재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사역이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면서 선교사들에게 안정적인 비자를 유지시켜주는 등의 사역, 한국의 교회를 연결해서 선교지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사역, 한국어 교육을 하면서 연결된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역이 여기에 속한다.

26) 윤정노, “온누리교회와 두란노 해외선교회의 시니어 선교 사례연구”, (한국선교KMQ 68호, 2018),94.

27) 세계선교훈련원 “3기 시니어 신임선교사훈련 계획” (2021.5.4.) p.2-5.

둘째는 선교팀 지원 사역이다. 이는 사역의 핵심적인 위치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기존 선교팀을 도와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사역을 말한다. 신학교의 건물이나 식사를 관리해주는 사역, 경험을 살려 선교사를 자문하거나 영적으로 돕는 사역, 선교팀 중에서 사역의 한 파트(한 지역, 상담, 강의 등)를 감당하는 사역 등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교회개척 사역이다. 미전도종족 가운데서 직접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언어와 체력적인 면에서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런 면으로 황금기선교사도 직접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경험과 언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는 한인교회 목회 사역이다. 이는 특히 한국에서 목회경험이 많은 목회자 출신 황금기선교사가 감당하기에 상당히 현실적인 제안이다. 한인교회 사역은 선교현장에서 필요한 사역이지만, 젊은 선교사가 한인교회를 감당하면서 현지인 사역의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 따라서 경험 많은 황금기선교사가 한인교회를 감당한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2. 황금기 선교사훈련의 목표

그런 사역을 감당할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어떤 훈련목표를 가지고 훈련해야 하는가?

- ① 선교사에게 필요한 영성과 인격을 갖추게 한다.
- ② 타문화 세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영적, 정서적, 육신적인 자기관리를 하게 한다.
- ③ 원만한 선교사 가족으로 살아가게 한다.
- ④ 노년층의 특성을 이해하고 선교지에서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한다.
- ⑤ 황금기선교사로서 정체성을 갖추고, 선교사의 책무를 다 하도록 준비하게 한다.
- ⑥ 선교학과 타문화 적응에 대한 전반적 지식과 이해를 갖게 한다.
- ⑦ 전도, 제자훈련, 교회개척 등의 선교의 실제적 사역기술을 연마하게 한다.

3. 황금기선교사 훈련의 기본 구성

명칭: 황금기선교사훈련(신임선교사훈련)²⁸⁾

기간: 7주(강의 가능 일수 40일)

적정인원: 12~20명(부부 동시 참석)

훈련방식: 전원 합숙(WMTC)

28) WMTC에서 2021년 7-8월에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도된 황금기선교사 훈련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명칭: 3기 황금기 장단기선교사훈련(신임선교사훈련)

기간: 2021. 6. 1(화) ~ 7. 15(목) 7주간 (강의 가능 일수 38일)

참석인원: 12명(5부부, 1명 싱글, 1명 혼자 참석, 남 7명 여 5명) - 전원 60대

훈련방식: 전원 합숙하며, 코로나로 인해 외출을 제한

- 훈련의 특성: ①일반 신임선교사훈련 내용 70%, 황금기선교사에 적합한 내용 30%
- ② 강의보다는 실습, 토론 및 발표를 위주로 진행
- ③ 자녀교육, 교회개혁에 관련된 기술, 깊은 신학지식 배제, 선배선교사의 시간, 노년의 특성 및 건강 관련 교육 강화

4. 훈련 방법: 6가지의 훈련 tools

선교사훈련은 전인적 훈련을 지향한다. 이는 훈련의 범위가 지적인 깨달음을 넘어서 인격적 부분, 사역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한다는 의미이다.²⁹⁾

〈표-2 6가지 선교훈련의 tools〉

분 야	훈련 방법	젊은 신임선교사훈련과 차별점
공동생활	일상생활을 함께 하면 긴밀한 교제 자율 교제와 공동식사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인관계 점검 기회	자녀양육의 부담이 없음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인관계의 성향을 노출하도록 유도
그룹토의	케이스스터디-선교지의 문제를 사전 예상 다양한 나눔 그룹토의 시간과 팀과제	황금기선교사의 사례 연구 팀과제 수행을 통한 협력 학습
심리검사/전문가상담	5가지의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 점검 상담스텝을 통한 분야별 전문적 도움	젊은 선교사와 동일한 수준의 심리검사와 상담 시행
예배와 경건의 삶	‘설교자를 위한 QT’로 말씀 묵상과 성경연구 묵요예배, 가정예배, 경건의 삶 체크	경건의 훈련과 함께 설교의 훈련을 병행
전문 강의	주제별 이론과 경험이 조화를 이루는 강의 내부 강사를 2/3 수준(선교사, 침신대 교수)	강의 시간은 젊은 훈련의 60% 각 강의별 수준 점검
자기연구	자신의 선교 환경과 사역을 연구하고 준비 기도카드 및 기도 편지, 교회 발표 준비	젊은 선교사와 동일한 수준의 선교사 준비를 요구

생활 가운데 선교사의 소명과 자세를 배우고 점검 받으며, 다양한 실습을 통해 부족했던 선교사역의 지식과 기술을 배운다. 멘토링을 통해 구체적인 준비를 점검 받고, 심리검사와 상담을 통해 선교사의 내면의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훈련은 반드시 합숙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런 면으로 선교사훈련의 6가지 수단(공동생활, 그룹토의, 심리검사/상담, 예배와 경건의 삶, 전문 강의, 자기연구)의 균형 잡힌 배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4. 강의의 구성

비록 황금기선교사훈련이 전인적인 훈련을 지향하더라도 새로운 지식의 전달, 결단의

29) Brynjolfson, Robert. 외. 『전인적 선교훈련 어떻게 할 것인가?(Integral Ministry Training)』 변진석 외 역, (서울: 한국해외선교회), pp.131-133.

촉구는 전문가의 강의의 역할이 여전히 크다. 강의의 분량은 일반 신임선교사훈련(12주)의 2/3수준(64%) 정도이며, 자녀교육, 교회개혁에 관련된 기술, 깊은 신학지식이 제외된 반면, 선배선교사의 시간, 노년의 특성 및 건강 관련 내용은 감소되지 않았다.

〈표-3 황금기선교훈련의 강의 구성〉

분 야	강의 제목	황금기 선교사 훈련	젊은 선교사 훈련	차이	비 고 (1세션은 3시간)
영성/소명	· 선교사의 영성(목회자) · 선배 선교사의 시간	6	6	0	목회자와 선배선교사의 사역경험을 듣는 시간
인간관계 / 가정	· 중년이후 가족관계 리모델링 · 부부의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 성숙한 대인관계/갈등해결 · 선교사 생애발달과 멤버케어 · 선교지의 정신건강	6	9	-3	자녀가 이미 장성했으므로 MK에 대한 과목이 대폭 축소되고, 중노년가정 과목 추가
선교학 이해	· 선교의 기초와 동향 · 선교사역의 방향 · 선교지 종교 연구 발표 · 선교전략의 이해	7	11	-4	선교학에 대한 깊은 이해 부분에서 일부분 생략함
선교의 역사	· 세계선교의 역사 · 침례교의 신앙과 신학	4	4	0	
선교 준비	· FMB회장 시간/FMB 행정 · 황금기선교사의 특성 · 선교의 동기와 소명/책무 · 선교사의 준비 · 선교사의 삶-timeline · 교회와의 관계 · 선교지의 위기대처	9	12	-3	선교사로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비슷하나 후원모금 등의 부분에서 다소 감소함
사역의 기본	· 선교사의 건강관리 · 문화 이해/문화 충격 · 타문화 전도 · 선교와 제자훈련 · 선교와 가정교회 · 영적 전투 · 언어습득	10	18	-8	사역기술에 대한 부분은 이미 경험이 많거나 선교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상당부분 생략함
사역준비	· 사역 계획 수립 · 팀 사역/협력 사역	2	8	-6	선교지에서 팀장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상당부분 생략함
기타		2	4	-2	
합계		46	72	-26	젊은선교사훈련은 12주간 황금기훈련은 7주간 훈련

이해와 종합의 능력은 좋으나, 새로운 지식의 습득 및 암기의 능력이 약한 노년층의 특성에 맞추어, 듣는 강의보다는 토론하고 연구하여 발표하는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적지 않은 토론 및 과제물이 있다.

〈표-4 토론 및 과제물〉

세미나	연구 발표	케이스 스터디	과제물	보충학습
기도편지 후원모금 파송준비점검 재정관리 초기 정착 사역계획 준비	기도편지 선교사 인물연구 선교지 종교 연구 사역계획 발표	황금기선교사 소명 파송 준비 선교지 생활/사역 인간관계 선교지 문화	기도편지1,2 후원모금 계획 파송준비점검표 재정기록(가계부) 초기정착 계획 사역계획 독서보고서	기도편지작성 엑셀 사용법 영상편집

나가는 말

많은 하나님 나라의 큰일들이 우연한 기회에 시작되었듯이 WMTC 31기 황금기선교사 훈련도 우연한 기회에 시작되었다. 2021년은 코로나-19의 위협이 여전히 기세등등할 때였지만, 감사하게도 침례교 해외선교회에는 선교사 지망자가 30명이 넘어 한 번의 신입선교사훈련으로 수용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그렇다고 2020년처럼 두 번의 동일한 훈련을 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적었다. 이때 연구 중이던 황금기선교사 전문훈련을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 대두되어 훈련을 준비하게 되었다. 아직 훈련이 진행 중이지만 이번 첫 황금기선교사훈련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WMTC에서 처음 시행된 파일럿 프로그램이면서, 한국에서도 합숙방식의 훈련으로서 첫 시도라는 의의가 있다.³⁰⁾ 따라서 훈련의 기획과 과정, 평가 등을 통해 향후 더 효과적인 황금기선교사훈련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훈련을 진행하면서 황금기선교사의 용어, 정체성, 사역철학의 정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이는 FMB 뿐 아니라 한국 선교계 전체를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황금기선교사를 위한 각종 제도와 이론 등의 발전이 절실하다.

셋째, 2021년 WMTC의 황금기선교사훈련은 그동안 수신회의 신입선교사훈련의 경험에 근거하여 그 연장선상에서 설계되었다. 즉, 전인적 훈련, 공동체생활(합숙훈련), 해외적응 및 사역준비 훈련이라는 WMTC 고유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아무리 연령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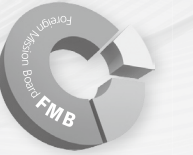
30) 시니어선교한국의 시니어선교훈련(10주)와 GPTI의 전문인선교사훈련(5개월)은 주말에 와서 강의를 듣고 가는 훈련이면서 수강생의 일부분만 해외로 파송되는 형태이므로 사실상 시니어 해외선교사를 위한 전문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면으로 WMTC의 31기 황금기선교사훈련은 55세 이후에 해외선교사로 파송되기 위해서 받는 훈련으로서 한국의 첫 번째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높고, 사회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선교사로서의 기본을 세우는 선교사훈련을 시행하였다.

넷째, 무엇보다 첫 황금기선교사훈련의 가장 큰 의의는 황금기선교사 제도상의 무한한 가능성이다. 황금기선교사는 한국 선교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 하는 원동력이면서, 아직 미개발된 블루오션이다. 수많은 황금기선교사가 헌신하고 그들을 적절하게 훈련하여 땅 끝으로 파송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20절)





신임 시니어 선교사¹⁾에 관한 설문조사 응답현황과 사례분석



| 세계선교훈련원(WMTC)
김사랑 간사

본 설문은 총 22명의 현재 선교지에서 선교사역을 하고있는 시니어 선교사와 19명의 각 선교지의 지부장 선교사(해당지역 팀장)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여기에 현재 시니어로서 훈련을 받고(만55세 이상 때 훈련받음) 선교지에서 현재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부부 5가정을 인터뷰를 하였다. 여기서 시니어 선교사라 함은, 55세 이후에 자신의 이전 직업을 내려놓고 신임 선교사 훈련에 임한 후 선교지로 파송되는 신임 선교사들을 의미한다. 시니어 선교사는 사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자신이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일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와는 상관없이 선교지 사역에 처음 발을 내딛는 ‘신임 선교사’의 위치에 서있게 된다.

본 글은 현재 선교지로 나가 사역하고 있는 시니어 선교사에 대한 인식 및 현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²⁾ 내용을 기초로 하였다.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인생의 중반기를 맞이하면서 자연스럽게 제2의 삶을 준비하는 시대가 왔다. 시니어는 20대의 열정과 는 사뭇 다르다. 기존의 사회 경험, 넉넉함과 여유, 자신에 대한 확신, 신앙적인 정체성의

1) FMB에서는 지난 2021년 6월, ‘신임 시니어 선교사’에 대한 명칭을 ‘황금기 선교사’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의미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전에 사용했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2) 본 글은 2021년 5월7일 시행된 시니어 선교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와 인터뷰내용을 통합 분석하였고 글의 기본 바탕이 되는 설문조사와 인터뷰 자료는 세계선교훈련원(WMTC) 이병문 부원장이 제공하였다.

확립,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의 감소 등 다양한 이유로 본인의 새로운 삶에 대한 열정을 재확인하고 그 열정으로 뛰어들기 원하는 세대로 부상하고 있다. 선교에 지원하는 시니어들은 자신들의 열정을 하나님께 쏟아 은퇴 혹은 조기은퇴후 하나님 나라 확장에 뛰어들기를 원하는 귀한 선교 헌신자들이다. 그렇다면 많은 선교자원들이 쏟아져 나올 황금시기인 지금, 시니어들을 환영하고 동원하고 그들의 특성에 잘 맞는 훈련을 통해서 제2의 선교 물결을 일으킬 준비를 해야 한다. 본 글에서는 시니어 선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내용에 대해 8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통합하여 기술할 것이다.

1. 소속과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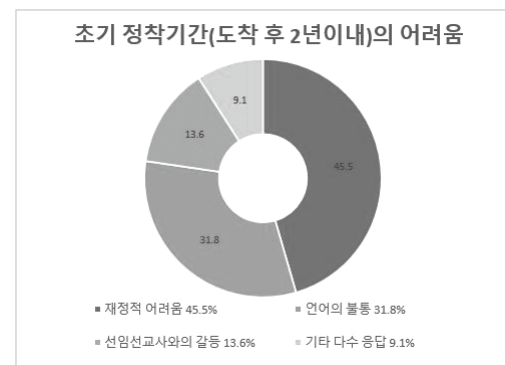
시니어 선교사의 표본은 5~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22명의 FMB 소속의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이 사역을 하는 국가는 한국, 멕시코, 말레이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키르기즈스탄, 터키, 필리핀이다. 이 중 9명은 독립사역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13명은 협력선교를 하고 있다. 협력선교를 하고 있는 시니어선교사들은 팀원, 팀장, 교문 등으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들이 선교사로서의 꿈을 가지게 된 시기는 30-40대가 일반적이었다. 30-40대에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경우 또는 다양한 상황들에 의해서 곧바로 선교지로 나갈 결정을 하기 보다는 선교사로서의 소망을 품고 있다가 비로소 은퇴시점이 되었을 때 다시 자신의 소명을 재확인하고 비전을 확인하여 시니어 선교사로서의 발돋움하게 된다. 50-60대에 시니어 선교사가 된 것에 대해서 45.5%가 ‘너무 늦게 선교사가 된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54.5%는 ‘적절한 시기에 선교사가 된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다. 본인 스스로 선교사가 된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22명 중 17명인 것을 보았을 때, 시니어 선교사로서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해외선교를 헌신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에 대해서는 선교지를 방문한 경험, 선교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통해서, 선교대회참석, 선교사의 선교보고와 간증 순 이었다.

2. 파송

파송의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시니어 선교사부부 5가정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잘 드러났다. A선교사 부부는 한교회가 평신도 선교사에게는 후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마음이 어려웠으며 공동 협력사역을 하는 데 있어 사역에 대한 논의가 파송 전과 파송 후 실제현장에서 달랐다는 점을 꼽았다. B선교사 부부

는 아내의 동의를 얻는 것에 5년이나 걸릴 정도로 가족의 동의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파송교회와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C선교사 부부는 훈련을 마치고 나서도 주변 친척과 친구들의 비난이 있었고 이는 선교사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으로 다가왔음을 고백했다. D선교사 부부는 초기에 타 선교회의 간사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FMB로 소속을 옮기게 되는 과정 중에서 한국에 기반이 없다보니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E선교사 부부는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선교를 위해 성도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당시 고2였던 아들을 두고 가는 것, 사전에 준비가 되지않아 후원모금이 쉽지 않았다는 점, 파송 전에 사역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던 것, 선임선교사들의 도움이 없었던 점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3. 재정

초기 정착기간(도착 후 2년 이내)에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꼽았으며 이는 인터뷰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거론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근로소득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녀교육이나 사업, 혹은 기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재정이 안정

화 되어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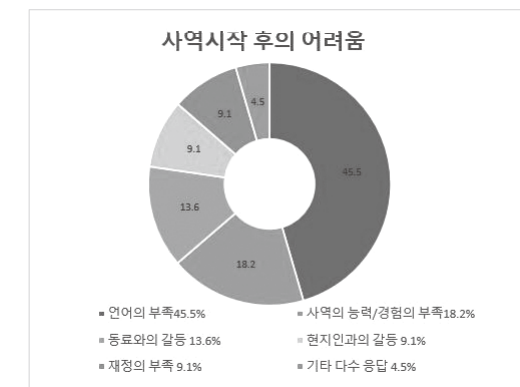
자신에게 재정 후원을 하고 있는 교회수에 대한 답변은 1~10개 교회로 다양했고, 2~5개 교회에서 후원을 받는다는 응답과 7~10개 교회에서 후원을 받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교회후원으로부터 받은 재정은 전체 생활비와 사역비 중 1~60%의 범위 안에서 사용되었다. 시니어 선교사들에게 재정 후원을 하는 개인 후원자는 평균 2~5명이었다. 또한 생활비와 사역비 중에서 개인 자산으로 부담하는 비율은 평균 60~80%으로 나타났다. 팀에 재정적 기여를 어느 정도 하는가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팀 사역을 하는 시니어 선교사의 경우 9~50%정도 선에서 골고루 응답을 한 것을 보아 개인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니어 선교사들의 자가 재정 부담률이 높은 것을 볼 때, 신입 시니어 선교사는 파송 전에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많은 시니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의 초기 생활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을 1순위로 꼽았지만 사역지에 적응하고 나서는 언어의 문제를 1순위로 꼽았는데, 이는 선교지에 지내면서 차츰 후원을 늘린다면 선교지에서 생활하면서 점차 유연성 있게 재정의 규모를 감당하게 된다

는 것을 알려준다. 그렇지만 선교지에 생활한다는 것은 타 문화권에서 생존의 문제이며 재정은 그 기본이 되기에 재정에 관한 자신만의 기준점을 가지고 준비가 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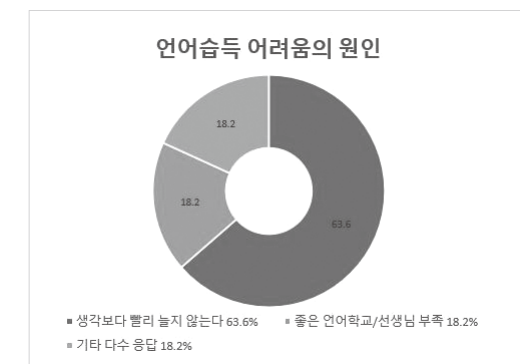
4. 언어

사역을 시작한 시니어 선교사들은 가장 어려운 점을 언어로 꼽았다. 초기 정착 기간에 가장 어려웠던 점을 압도적인 비율로 재정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선교지에서 생활을 하면서 부딪치는 부분은 결국 언어적 측면이라는 점을 극명히 보여준다.



시니어 선교사들이 언어를 배우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에 있어 ‘생각보다 빨리 늘지 않는다’는 답변이 65%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좋은 ‘언어학교와 선생님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했다.

시니어 선교사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시니어 선교사는 ‘현지인과 자유대화가 가능한 수준’과 ‘설교와 성경공부 인도가 가능한 수준’까지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일부는 현지인처럼은 아니지만 생활언어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시니어 선교사들은 ‘현지언어로 설교와 성경공부의 인도가 가능하다’는 답변과 ‘현지인과 자유대화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다. 일부는 일상대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현지인 수준으로 언어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도 있었다. 반면 지부장 선교사들은 시니어 선교사의 한계점을 1위로 ‘언어습득이 어려움’을 들었는데, 지부장들이 시니어 선교사들의 언어능력을 평가해 볼때, 시니어 선교사의 절반 이상이 생활 언어정도만 할 수 있으며 사역언어는 15%정도만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실제 선교지 사역에 있어서는 시니어 선교사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는 시니어 선교사들이 실제 선교지에서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언어를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잘 해야 하거나 잘 준비해야함을 보여준다.



5. 인간관계

꼭 선교지가 아니더라도 어쩌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이 아닐까 싶다.

본 시니어 선교사들의 설문에 따르면, 시니어 선교사 본인이 평가했을 때 주변 팀장이나 팀원, 팀 외 선교사, 타 단체 선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좋은 편’이라는 답변이 우세하다. 본 항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설문조사에서는 ‘대체적으로 좋다’고 평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선교지의 인간관계에 있어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고 나름의 해결 방안들을 가지고 있었다. A선교사는 시니어 평신도 선교사는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는 주변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이 관계형성에 있어서 매우 부담스러운 부분임을 꼽았다. B선교사는 선임과 후임의 차이를 많이 느껴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시니어 선교사들은 팀 사역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독자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보다 나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분명 섬김의 자세는 갖추어야 한다고 답했다. C선교사는 시니어 선교사가 활성화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충분히 사회 경향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들에 대해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아서 현지인들과의 관계나 선교사 사회에서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시니어선교사들의 장점은 부모의 마음으로 사역 부분에서 품어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자격보다는 자세가 더 중요함을 주장했는데, 선임 선교사들이 더 젊기에 나이를 따지고 사역하기에는 그들과 함께할 수 없으며 선임으로서의 존중과 대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하며 선임 선교사의 자리를 존중하라고 말했다. D선교사는 팀 안에서 중보 하는 자로서의 시니어 선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실제로 연륜이 있는 사람이 팀안에 있을 때, 팀의 큰 윤활제가 되었다고 답했다. 또한 선임선배가 젊더라도 순응할 줄 아는 마인드를 가져야 하며 나이를 불문하고 어려운 부분은 여전히 인간관계임으로 영적이고 인격적인 성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사역을 하면서 동역하는 사람들끼리의 관계적인 문제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E선교사는 같은 교단의 선교사와의 어려움이 컸음을 토로했다. 시니어 선교사도 나름의 삶의 확신과 고집이 있고 선배 선교사 또한 자리가 잡혀있는 사역이 있기에 서로 자기를 내려놓지 않음으로 인해 갈등이 커진다고 답했다. 더불어 시니어가 낮은 자세로 선배 선교사에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선교지로 가기 전 선임과 후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며 나이를 내세우지 말고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선임이 정해주는 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함도 더불어 강조했다.

지부장의 설문에 따르면 시니어 선교사들의 대인관계는 5점 척도로 보았을 때, 3점정

도로 보았다. 지부장들이 시니어 선교사들과 마찰이 생기는 이유와 어려웠던 단답형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다.

- 1) 한국에서 쌓은 경험과 사회, 목회경험을 내세워 장기사역자에게 어려움을 주는 모습
- 2) 현지 사역과 상황들을 선입견으로 보며 무시하거나 교제를 하지 않는 모습
- 3) 사역을 하려는 것이 아닌 노년을 즐기려 하는 모습
- 4) 선교사 연차서열을 굉장히 힘겨워하고 나이의 서열을 강조하는 모습
- 5) 완고함으로 의견을 잘 듣지 않으려하는 모습
- 6) 언어에 따른 생활과 사역 정착의 어려움, 언어 배우려는 것을 생략하려하는 모습
- 7) 대우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전문성만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모습
- 8) 현지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마치 자신의 지혜를 들어야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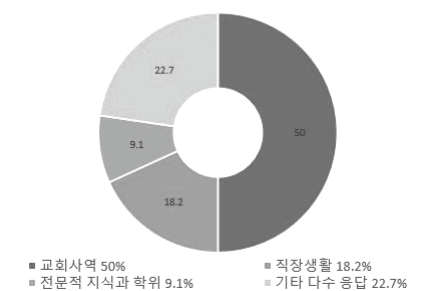
반면 시니어 선교사로서의 좋은 모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다.

- 1) 풍부한 목회와 선교경험과 나이가 있음에도 겸손하고 존중하는 모습
- 2) 자신들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젊은 사역자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뒤에서 사소하게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역을 감당, 섬김의 본이 되었던 모습
- 3)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1회 이상 현지인을 초청하여 관계를 맺고 전도 전 단계 사역에 매진, 사역자들을 초청하여 식사하고 격려하는 모습
- 4) 함께 함으로 격려가 되고, 언어를 배우면서 겸손하게 배우려고 노력하고, 같이 기도해주면서 세워주고, 한국의 전통적인 맛인 음식으로 섬겨주고, 무엇인가 부족하면 도와주려는 모습
- 5) 사회 경험이 많다 보니 사역에 좋은 부분을 많이 조언하는 모습
- 6) 오랜 사회 경험을 통하여 가지고 있는 좋은 지식 들을 가지고 선교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는 모습
- 7) 재정적인 안정과 사역경험의 모습

6. 파송교회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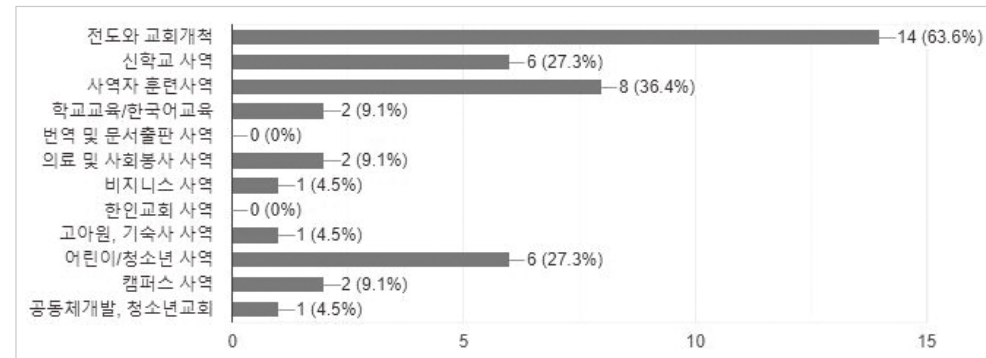
선교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어려웠던 점에서 언어를 뒤이어 사역의 능력과 경험의 부족을 꼽았다. 이와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설문 문항 중, ‘과거의 경력 중 선교지에서 가장 도움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교회사역이 압도적인 비율로 높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 뒤를 이은 답변은 직장생활과 전문적 지식/학위였다. 설문 결과

선교지에서 도움이 되는 과거의 경력



를 보기전 자체 연구결과를 통해 과거의 직업경력이 실제 사역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했으나 실질적인 답변을 통해 파송 전 교회에서의 봉사와 사역이 준비된 선교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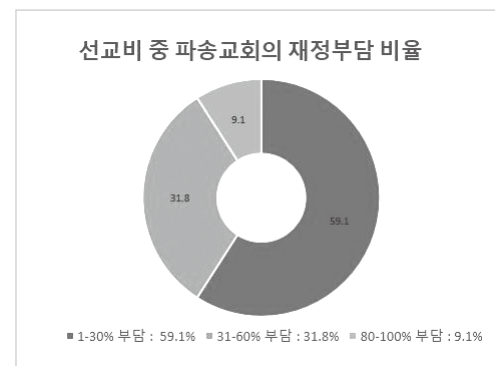
사실 사역영역에 있어서 중점적인 부분은 전도와 교회개척, 사역자 훈련사역과 신학교사역이다.(복수응답, 그림참조)



이처럼 선교지에서는 직장 생활의 전문적인 경력을 발휘하는 전문사역의 영역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교회개척과 제자양육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다보니 교회에서 해 왔던 사역이 큰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자면, 실질적으로 자신의 전문분야를 살려 선교지에 쓰임을 받고 싶은 시니어 선교사를 파송하고자 하는 교회라면, 시니어들이 ‘최대한 훈련을 일찍 받고 맨땅에 헤딩하듯 선교지에 우선 나가고 보자’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기위해 일찍 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여주고 선교지의 요구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역이 발생했을 때 파송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알려주어야 한다는 지표이기도 하다.

시니어 선교사들은 사역비와 생활비 부분에 있어 자가 부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앞서 언급한대로 재정적 어려움을 매우 크게 느낀다. 물론 선교



사 개인이 스스로 후원받을 교회들을 방문하고 개인 후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모 교회나 파송교회로 부터 고정적인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선교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한다. 파송교회에서도 교회의 비전과 방향성을 기준으로 후원비를 책정하여 일정하게 재정 후원을 약속

하는 것은 서로에게 책임감을 심어주는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이렇듯 파송교회는 미래의 선교 헌신자들에게 있어 선교지에서의 영혼구령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고 가르침을 주고 나아가 제자를 양육할 수 있게 키우는 영적인 가정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많은 선교자원인 시니어 선교사들이 사역을 잘 이어가게 돕기 위한 조력자, 동역자, 보호자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7. 개인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시니어 선교사들이 후배 시니어 선교사들을 위한 조언들을 5가지의 키워드로 공통점을 파악해보았다. 건강, 재정, 언어, 내려놓음, 분명한 소명의식이었다.

첫째, 건강이다. 선교지에서의 기후나 생활환경에 적응하며 사역을 원활히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관리는 수차례 반복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직항으로 갈 수 있는 선교지인가? 내 몸에 대해 세세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건강검진에 대한 결과와 본인의 몸에 불편한 점을 알고 있다면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잘 알고 있는가? 등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무리 열정이 있고 건강하더라도 선교지는 한국과 같은 기후를 가지고 있지 않고 타문화권의 환경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문화권에 대한 건강관리법이나 대처법을 꼭 숙지해야만 한다. 더불어 시니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둘째, 재정이다. 재정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정관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재정을 조달 할 수 있는 동원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후원을 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 선교사 자체의 기본능력 때문에 재정후원을 받지 않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재정의 후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재정을 받는 것을 넘어서 후원자 개인에게 선교지에서 동역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하나의 통로이며, 기도를 부탁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씩 후원자를 늘리는 것이 좋으며, 무작정 채워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재정미달 상태로 가는 것은 사역에 대한 책임감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선교지에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재정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상황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셋째, 언어이다. 앞서 시니어 선교사들의 선교지에서의 어려움은 언어문제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때문에 언어를 포기하지 말고 현지어를 최대한 열심히 공부하라고 조언한다. 파송국가를 고려할 때 언어습득이 비교적 어렵지 않거나 본인이 잘 배울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를 선택하여 가는 것 또한 방법이다.

넷째, 내려놓음이다. 겸손과 순종은 선교지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시니어 선교

사들은 나이를 떠나 신입으로 파송되기 때문에 본인보다 젊은 선배 선교사들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선교지 현장에서는 선후배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중요한 덕목이기에 꼭 숙지를 해야 함을 강조했다.

다섯째, 분명한 소명의식이다. 은퇴 후 보람 있고 멋지게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선교지에 나오면 반드시 실패함으로 분명한 부르심을 확인하고 나와야 한다. 기존에 갖고 있던 한국적인 가치와 문화,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선교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역에 동역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비로소 겸손과 순종적인 자세로 타 문화권을 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8. 선교사 훈련기관

오랜 기간 교회와 개인이 잘 쌓아왔던 삶의 바탕을 기반으로 선교지에 나가기 전 필수적으로 선교사 훈련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시니어 신입 선교사훈련을 주최하는 훈련기관은 선교사의 니즈에 맞는 특화된 훈련프로그램을 만들어 잘 준비된 훈련구조 안에서 준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 역할이다. 이를 위해 실제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시니어 선교사들에게 시니어 신입 선교사 훈련 시 강조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대한 답변을 3가지의 키워드로 정리 해본다면, 인간관계, 현지상황과 문화스터디, 분명한 소명의 확인과 철저한 신앙 관리이다. 현재 필자가 간사로 섬기고 있는 선교사 훈련기관인 세계선교훈련원(WMTC)에서는 시니어 신입 선교사 훈련과정에서 3가지



키워드를 어떻게 적용하여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관계다. 선교지에 가게 되면 선교사에게 있어 인간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지부장들에게 어떤 성격의 시니어 선교사들이 오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순종적이고 무난하고 현지인을 잘 사귄 수 있는 사교적인 사람을 꼽았다. 이는 아무리 나이가 있다 하더라도 선후배와의 관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순종하고 겸손한 인내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시니어 선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경험이 많고 자신에 대한 정립이 잘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이 젊은 선임선교사와 동역할 때 큰 의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선임선교사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고 느끼거나 부담이라고 느끼게 될 수도 있다. 세계선교훈련원(WMTC)에서는 훈련기간 중 선교지에서 팀 사역 혹은 타 선교사들과의 관계에 있었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강의 뿐 만 아니라 그룹 스터디를 필수과목으로 하여 관계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서 시니어 선교사들이 선교지 사역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외에도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문제에서의 갈등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절한 도움을 주고자 한다.

둘째, 현지상황과 문화스터디다. 해당 파송 선교지에 대한 현지 상황(종족, 종교, 문화, 관습 등)에 대한 앎과 이해 그리고 현지인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자세가 요구된다. 오랜 한국 생활이나 타 문화권에서 생활했던 시니어 선교사들은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되, 파송 선교지에 자신을 적응시키고 맞춰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타 문화권에 여행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을 섬기러 간다는 마음가짐과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 세계선교훈련원(WMTC)에서는 훈련생 각 가정들마다 품고 있는 선교지에 대한 문화와 상황과 역사에 대한 연구 과제를 주어 스스로 공부하고 발표하는 과정가운데 현지에 대한 마음을 열고 알아가도록 돕는다. 더불어 종교와 문화에 관한 수업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타 문화권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룹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타 문화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미리 공부해 문화에 대한 충격을 줄이고 원활한 적응을 돕고자 한다.

셋째, 분명한 소명의 확인과 철저한 신앙 관리다. 선교사로서의 분명한 목적이나 역할을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이 필요하다. 앞서 말했듯, 선교지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섬기러 간다는 섬김 의식과 낮은 자세는 확실하고 분명한 소명의 확인에서부터 우러난다. 분명한 소명의식이 없이 은퇴 후 멋진 인생을 해외에서 보내거나 명확한 소명의식 없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선교지행을 결정한다면 선교지에서 부딪히거나 교만해지거나 고난의 상황에서 쉽게 지칠 가능성이 크다. 세계선교훈련원(WMTC)에서



는 이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지에 나가 사역하게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상담, 선임 선교사들의 사역보고와 간증을 배치하고, 훈련기간 동안 훈련생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선교사로서의 역량을 스스로 갖추어 가도록 돕고 있다. 더불어 매일 아침 이뤄지는 큐티 시간, 말씀읽기, 공동예배, 기도회를 통해 영적으로 황무지인 선교지에서도 중심을 잘 잡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글을 마치며

지부장 선교사 19명의 설문 기초자료를 보면, 시니어 선교사와 동역해 본 사람은 약 30%이다. 여전히 시니어에 대해 듣기는 했지만 직접 동역해 본 경험이 많지 않고, 주변에서 사역하는 것을 들어보기만 한 정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시니어 선교사에 대한 필드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적절한 훈련의 도구가 없었기에 아직 정확한 지표를 내놓을 수는 없지만 지부장들의 설문에서 따르면 '시니어 선교사가 필요하지만 잘 준비된 사람이 와야 한다(63.2%)', '더 많은 시니어 선교사가 오기를 바란다(21.1%)' 라고 응답한 것과, 적절한 시니어 선교사가 온다면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조건이 맞는 분이 오시면 원한다(42.1%)', '적극적으로 원한다(26.3%)'순으로 답변한 것을 볼 때 시니어 선교사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앞으로 잘 훈련된 선교사와 준비된 선교사로 가기 위해 교회와 훈련기관 그리고 개인이 어떠한 준비들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 세심하게 준비하고 연구해야한다. 시니어 선교사들의 개인적 동기와 열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들이 파송되기 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나 훈련 기관들은 그들에게 사역에 필요한 기본기를 제공하고 영적으로 북돋아서, 헌신된 시니어들이 진정한 선교사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교회와 각 선교단체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명심하고, 시니어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선교 헌신자 개인, 교회(파송기관), 훈련기관이 모조록 더 강하게 연합해야 할 때이다.

특히 시니어 선교사는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 사역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 그렇다보니 오히려 젊을 때 자녀양육의 부담을 가지고 가서 사역을 시작하는 선교사보다는 사역에 효율성이 높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굳이 팀 사역이 아니더라도 독립사역을 통해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협력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 이 외에도 시니어 선교사는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장점들을 품고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귀한 자원들이다. 앞으로 시니어 선교사들의 선교지에서의 활약으로 시니어 선교사의 필드가 건강하게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친다.

구술 문화권 제자훈련 방식으로의 성경 스토리텔링



| FMB/키르기스스탄
오선택 선교사 (Th. D)



들어가는 말

인간의 경험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이성적이고 과학적 사고만으로는 온전히 나타낼 수 없는 인간의 경험을 위하여 논의되는 대안적인 방식이 바로 이야기이다. 이야기는 인간이 경험하는 사건, 인물 행위의 감정과 정서 의도와 생각 상황과 장면 등을 총체적으로 통합시켜주는 인식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¹⁾ 이야기는 모든 문화에 산재하지만, 특히 구술문화에서 더욱 폭넓게 활용된다. Walter J. Ong에 의하면 모든 이야기에는 어떤 종류의 줄거리(story line)가 있고 이 줄거리 속에 정보를 보관하거나 이것을 조직하고 전달하면 이해하기도 쉽고, 기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가 쉽다. Ong은 구술문화에서 이야기를 사용하는 이유를 다음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첫째는 이야기가 구술문화에는 정보를 보관하고 조직, 전달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이야기는 상당히 견고하면서도 실체적이고 긴 형식 속에 많은 양의 전승을 묶어 둘 수 있기 때문이다.²⁾

Bruner에 의하면 인간들은 이야기 형식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과 타인의 경험을 글 또는 말을 이용하여 이야기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다. 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1) 강문숙, 김석우,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효용성에 대한 학습자 인식 연구," 사고개발 8.2 (2012): 86.

2) Walter J. Ong,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기우, 임명진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5, 222-31.

내러티브 본질이며, 인간의 간편한 행동 양식이다.³⁾ Polkinghorne은 내러티브는 이야기와 유사하며, 일련의 사건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연결 지을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경험과 학습을 위하여 내러티브 방식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⁴⁾ 인간의 삶은 이야기적 삶이며,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⁵⁾ 스토리텔링은 내러티브를 구체적으로 전달 수행하는 행위이다. 내러티브는 이야기 구성체로서, 그것은 인물(agent)이 시간과 공간의 조건 속에서 어떤 행위를 벌여 나가는 사건(event)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야기 구성체로서의 내러티브는 이야기를 일정한 내용 체계로 유지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스토리텔링은 이러한 내러티브를 구체적 상황에서, 구체적 필요에 의해서, 구체적 대상에게, 구체적 내용으로, 구체적 매체로 변용(變容)하여 실현하는 행위이다.⁶⁾

송정란에 의하면 스토리텔링은 개인에게 세상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기본적인 단위이며 방법이다. 사람과 사물의 본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스토리가 개입되며, 이를 엮어서 전달하는 창조적인 활동을 수반한다.⁷⁾ 스토리텔링은 ‘스토리’의 의미에 ‘텔링’이라는 동작 명사가 부가된 합성어이다. 즉 어떤 이야기를 만들거나 이야기를 남들에게 표현·전달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다. 일단 ‘스토리텔링’은 어떤 이야기를 남에게 알려준다는 ‘소통 행위’에 방점을 둔 용어로 볼 수 있다.⁸⁾ 스토리텔링은 사건 진술 내용을 ‘스토리’, 사건 진술 형식을 ‘텔링’이라 할 때 교육내용인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과 그 이야기를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텔링을 포함한다. 따라서 스토리텔링은 학습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즉, 교육내용을 일련의 사건들로 엮어 전달 매체를 통해 재미있고 설득력 있으며, 쉽게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⁹⁾

최근 국내에서도 내러티브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교육학 분야에서도 내러티브에 대한 논의는 교과교육과 교사 교육, 교육과정 분야의 질적 연구 방법에서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내러티브는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습자의 경험과 삶을 구성하고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의 역할을 한다.¹⁰⁾

3) Bruner, J. The culture of educ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4) Polkinghorne, D. E. Narrative knowing and the human science, Albany, NY: SUNY press, 1988을 참조하라.

5) 강문숙, 김석우, Ibid., 84.

6) 박인기. "스토리텔링과 수업 기술." 韓國文學論叢 59.- (2011): 411-435.

7) 송정란. 『스토리텔링의 이해와 실제』, 서울: 문학아카데미 2006을 참조하라.

8) 류수열 외. 『스토리텔링의 이해』 (서울: 글누림, 2007), 19

9) 조일현. "스토리텔링 몰입 수업환경(STILE) 설계 전문인력 양성 연구". 한국사이버교육학회 연구보고서, 2004; 강문숙, 김석우, Ibid.을 참조하라.

10)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강문숙, 김석우.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효용성에 대한 학습자 인식 연구." 사고개발 8.2 (2012): 83-106 등을 참조하라.

기독교 선교의 목표는 복음전파를 위한 적합한 방법을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민족들 가운데에 토착적인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그동안 선교사들이 구술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구술 문화권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못했다. 다행하게도 40년 전에 필리핀에서 부족 사역을 하던 부족선교회(New Tribes Missions) 선교사들과 미국 남침례교 해외선교회(IMB) 소속 선교사들이 구술문화자를 위한 복음 전도와 지도자 훈련을 위한 스토리텔링 방법을 개발해서 활용함으로써 여러 나라에서 좋은 결과들을 얻고 있다.¹¹⁾ 이 글에서는 구술문화자들을 위한 제자훈련의 방식으로써 성경 스토리텔링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만일, 구술문화자에게 적합한 제자훈련 방식이 개발된다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되는 구술문화자들이 자신의 문화에 맞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복음을 듣고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활용, 스토리텔링을 통한 교수학습, 성경과 스토리텔링, 성경 스토리텔링에 대한 전략과 기술 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활용

스토리텔링이 교수·학습 과정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야기가 갖는 맥락적 속성 때문이다. 이야기는 인물, 사건, 배경(시간, 장소)으로 구성되며 이는 인간 삶의 장면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야기를 통해 교사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지식)을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화한 형태로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다. 지식은 추상적이고 탈맥락적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학생은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며 자신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¹²⁾ 이현선에 의하면 방향성 없는 스토리텔링의 활용이 학생의 주의를 분산시켜 목표 달성을 방해함으로 교수·학습 과정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했다.¹³⁾ 따라서 스토리텔링의 역할과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인간의 사고, 경험, 학습을 이해하는 과정의 중심에는 실증적 과학적 합리주의가 자리 잡고 있어, 논리적 귀납적 추론, 형식적이고 일관성 있는 인식체계 등이 인간의 존재를 파악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¹⁴⁾ 이러한 관점은 현재 교수학습 과정이 단순 지식, 단편적인 정보전달, 일방적인 교수자와 수동적인 학습자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Bruner가 지적한대로 인간 경험은 전통적인 과학적 사고방

11)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논의는 Kuem Ju Lee, "Bible Storying: a Recommended Strategy for Training Church Leaders in Oral Societies" Ph.D. Dissertation,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005을 참조하라.

12) 이현선, 최영환.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스토리텔링 활용 방안 체계화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62.- (2017): 166.

13) Ibid.

14) Polkinghorne, Ibid.

식만을 통해서 완성될 수 없는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¹⁵⁾ 이러한 측면에서 내러티브는 인간의 경험과 학습을 위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간편한 행동 양식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방식이다.¹⁶⁾

내러티브(서사)와 스토리텔링은 근대 학교 이전부터 교육내용과 교육 활동의 주요한 원천으로써 활용되어 왔다. 삶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혼연일체를 이루고 있었던 시절에는 스토리텔링 자체가 그대로 교육 전체였다. 그러므로 스토리텔링은 경험의 총체성을 반영한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다. 그리고 그것은 학습 주체를 중심으로 삶을 총체화 하도록 이끌어 간다. 교수학습 방법에서 내러티브의 유용성을 박인기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내러티브는 인간 경험의 총체성을 드러낸다; 모방과 반영의 학습 기제를 지니고 있다; 반성의 기제를 내포하고 있다; 의미 구성에서 인지와 정의를 통합할 수 있다; 학습자에게 의미의 그물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제공한다 등이다.¹⁷⁾

최혜실에 의하면 스토리텔링은 인간이 실세계를 이해하고, 그가 속한 사회에 충실하게 참여하는 데 필요한 실제적 지식을 담고 있다.¹⁸⁾ 허희옥에 의하면 스토리텔링은 교수자와 학습자 중심을 통합하여 실생활이나 가상적인 학습경험을 말함으로써 성찰적으로 조망되고, 학습자가 학습활동에 대한 동기유발과 책임감을 증진할 수 있다.¹⁹⁾ 따라서 스토리텔링은 인지와 감성의 통합적 도구이며 학습자에게 감성과 지성을 적극적으로 격려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다양한 스토리 창작을 위하여 자기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식을 생산해내는 교육적 효과의 강력한 변인으로써,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방식이다.²⁰⁾

한편, 스토리텔링은 표현양식과 전달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즉, 사람의 입으로 전달되기 시작하면서 종이매체, 영상매체, 디지털 매체 등과 같은 디지털 스토리텔링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영상매체로 표현된 스토리가 여전히 독자나 청중이 수동적인 향유에 만족하게 하였고, 능동적인 창조를 갈망하는 요구를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²¹⁾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그 표현방식의 표현으로 인하여 인간 경험과 학습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즉, 개별학습 환경구성, 풍부한 학습정보 제

15) Bruner, J. The culture of educ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1996).

16) Ibid.

17) 박인기, "스토리텔링과 수업 기술," 韓國文學論叢 59, - (2011): 411-435.

18) 최혜실, "스토리텔링의 이론 정립을 위한 시론", 국어국문학회 발표논문. 충북대학교, 2008, 5, 24.

19) 허희옥,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교육컨텐츠 개발, 교육공학 연구", 2006, 22(1), 195-224을 참조하라

20) 자세한 내용은 백조현, 박수홍, 강문숙, 스토리텔링 수학과 수업설계전략 모형 개발, 교육, 혁신연구, 2010, 20(1), 113-142; 허희옥, 조일현, "스타일리스트 양성 과정의 개발 연구", 『기업교육 연구』, 2006,8(1), 27-57을 참조하라.

21) 이인화, 교육, 전봉관, 강심호, 전경란, 배주영, 한혜원, 이정엽(2004). 디지털 스토리텔링. (서울: 황금가지, 2004)를 참조하라.

공, 학습자의 주의집중과 감성에 호소하는 상황 재현, 타인과의 생각 공유 및 상호작용 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이제 교육 분야에서도 인간의 삶과 매개하는 스토리텔링의 가치는 여러 가지 매체의 속성과 연결되어 다양한 표현방식과 전달방식으로 인간 존재의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다.²²⁾

교육 활동을 위한 스토리텔링 활동은 원래의 내러티브를 변용하고 재구성하고 재활용(remodeling)하는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 활동에서 스토리텔링이 교수·학습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학습하게 하는 방법 기제로 강조되면서, 교육 담론과 실천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²³⁾ 스토리텔링을 교수·학습활동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호응하려는 시도는 분명 서사학과 교육학의 융합을 구할 수 있는 분야가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다.²⁴⁾

박인기에 의하면 다채롭고도 창의적인 교수·학습 활동으로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려면, 내러티브를 매우 다양하게 변용하여, 수업 활동 속에 녹여 넣을 수 있어야 한다. 즉 내러티브의 해체와 변용이 필요하며 교수·학습 활동을 위해 내러티브의 다양한 작용 방식을 살려서, 학습활동의 효과를 높여 나가야 한다.²⁵⁾ 수업 활동으로 전이되는 스토리텔링은 내러티브의 구조와 내용과 요소를 부분적으로 변용하거나 내러티브를 특정의 스토리텔링으로 실현하는 매체를 변용함으로써 스토리텔링을 재개념화 할 필요가 있다.²⁶⁾

허희옥은 내러티브, 스토리, 스토리텔링,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대한 특징을 살려서 수업 과정에 적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제시했다. 첫째, 스토리는 캐릭터, 사건, 배경 등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관한 플롯으로 구성되고, 텔링은 만들어진 스토리를 전달하는 매체이다. 둘째, 스토리텔링은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주요 수단으로 동영상, 사진, 음향 등 멀티미디어 요소를 포함한다. 셋째,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학습은 말하기나 듣기, 참여, 반응이 표출되고 수용되며, 적절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상호작용이 풍부한 특성이 있다. 넷째,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은 인지와 감성의 통합적 도구로 기억, 저장, 전이, 관심, 느낌, 공감 등과 같은 감성을 동시에 일깨워 흥미와 몰입을 증진할 수 있다.

2. 스토리텔링을 통한 교수학습

칩 히스(Chip Heath)와 댄 히스(Dan Heath)는 『스틱!』이라는 책에서, 어떤 내용을 여러 해

22) Ibid.

23) Carol Lauritzen, Michael Jaeger 지음, 강현석, 소경희, 박창언 옮김『내러티브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이당, 2007)을 참조하라.

24) 박인기, "스토리텔링의 교수·학습 활동 작용," 韓國文學論叢 64, - (2013): 386.

25) Ibid., 403.

26) Ibid.

동안 오래 기억하는 방법을 ‘SUCCESS’라는 말로 첫 글자를 따서 요약했다. S-Simple(단순한), U-Unexpected(예상하지 못한), C-Concrete(구체적인), C-Credible(신뢰할 수 있는), E-Emotional(감정적인), S-Stories(이야기들) 이야기는 아이디어를 달라붙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²⁷⁾

최예정은 스토리텔링이란 사건을 가공하여 전달하는 행위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얘기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므로 사건을 가공해서 화자와 청자 간에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분류해서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²⁸⁾

교사는 먼저 지식을 학생의 수준에 맞게 변환하고, 이것을 학생들의 경험을 반영해서 스토리로 만든다. 이야기를 시간 순서에 맞추어 배열하고, 이야기를 완전하게 다듬어서 교육적인 의미를 부여한다.²⁹⁾ 박소화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교수 설계의 실행 차원에서 수업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요소로 ‘페르소나’, ‘감정이입’, ‘비유’, ‘플롯’, ‘심미적 경험’, ‘시간성’ 등을 들었다.³⁰⁾

박인기에 의하면 스토리텔링은 지식을 구성하는 그물의 역할을 하며 교사의 수업능력은 지식과 기능과 태도 등을 스토리텔링의 방식으로 전이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구체적으로 나누면, 첫째는 수업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하는 기술(Plotting Skill), 둘째는 수업의 상황적 요소를 스토리로 연결하는 기술(Connecting Skill with Instruction Situation), 셋째는 스토리텔링의 다양한 디테일을 만들어 내는 ‘디테일 변용의 기술이고, 넷째는 스토리를 연출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교수 기술이 모든 교과에 창의적으로 적용되고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창의적인 스토리텔링 교수·학습을 위해 내러티브를 매우 다양하게 변용하여, 수업 활동 속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내러티브를 창의적으로 해체하여, 수업 목적에 맞게 내러티브의 기능과 요소를 변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업 상황에서, 수업목표에 맞는 활동을 경험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스토리를 교육적으로 재개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¹⁾ 또 내러티브의 화자와 맥락을 변용하거나 스토리텔링의 매체를 변용함으로써 유효한 스토리텔링의 학습활동을 구안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스토리텔링을 재개념화의 실례이다.³²⁾

일반적으로 스토리는 어떤 특정한 기대감을 만드는 사건으로 시작하고, 그 기대감이 만족감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결말로 끝나는 플롯을 가지는데, 이것이 다른 유형의 내러

티브와 구별되는 특성이다. 따라서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은 스토리마다 유일한 해석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듣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가질 수 있다. 스토리텔링은 행동과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에 주목하며, 이들을 스토리 전개와 결말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의미 있는 하나의 통일된 자아로 변형시킨다.³³⁾ 이러한 변형을 가능케 하는 조직 구조가 바로 플롯이다.

3. 성경과 스토리텔링

Avery Willis의 관찰에 의하면 성경의 절반 이상이 이야기로 되어 있고 하나님이나 예수님 직접 글을 쓰신 경우는 단 세 번뿐인데 십계명 돌판에, 다니엘서의 벽에 쓰신 글씨, 그리고 예수님이 간음 현장에서 잡혀 온 여인 앞에서 모래 위에 쓰신 글이 그 경우다. 그러나 킹 제임스역 성경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이라는 구절은 414번이나 반복되고 있다.³⁴⁾ 하나님은 구두로 말씀하셨으며, 구약성경도 처음에는 대부분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나중에 기록되었다. 신약성경의 복음서도 수십 년간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나중에 기록된 형태로 만들어졌다.³⁵⁾

스타인은 성경 이야기의 해석원칙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문맥 안에서 해석해야 한다. 특히, 서론과 결론에 제시된 문맥적 단서가 개별 이야기를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또한, 성경 이야기가 기록된 전체 책의 주제와 목적의 관점에서 특정 이야기를 해석해야 한다. 둘째, 저자의 설명이나 삽입구, 요약진술 등을 통해 해석의 단서를 발견한다. 셋째, 저자가 핵심주제를 반복을 통해 자신의 의미를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넷째, 저자가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인물의 말을 통해 저자 자신의 의도를 말하게 할 수 있다. 다섯째, 대화 또는 직접화법을 통해서 저자의 의도를 전한다.³⁶⁾

하나님은 그분의 진리를 스토리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다. 구약에서는 단지 율법, 시편, 지혜서의 일부, 선지자들의 선포 일부만이 스토리 형태가 아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행전의 몇 편의 설교, 서신서 등이 이야기체로 되어있다. 우리는 역사가 바로 스토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³⁷⁾ 그는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확신한다.

나는 제자 양육 방법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자 양육 할 수는 없

27) Chip Heath, Dan Heath, 『스틱』, 안진환, 박슬라 역, (서울: 엘도라도, 2009), 50-51. Avery Willis, Ibid., 54에서 재인용.

28) 최예정, 김성룡,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 (서울: 글누림, 2005), 62.

29) 이지영, 박태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국어 수업 유형 탐색," 교육논총, (2015): 79.

30) 박소화, "스토리텔링기반 교수설계 원리 및 모형 탐색",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91-92.

31) 박인기, "스토리텔링의 교수·학습 활동 적용," 韓國文學論叢 64, - (2013): 382.

32) Ibid.

33) Polkinghorne, D. E. Narrative knowing and the human science. Albany, NY: SUNY press, 1988.

34) Ibid., 52.

35) Ibid., 52-53.

36) Robert H. Stein, 『성경해석학』, (A Basic Guide to Interpreting the Bible: Playing by the Rules) 배성진 옮김(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190-200.

37) Ibid., 61

을까 생각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접근법을 예수님의 접근법에 일치시킬 것인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마 13:34).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구원에 대한 믿음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역병 치유를 위해 장대에 뱀을 달아 들어 올린 모세 이야기를 해 주셨다. 이혼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돌아가 결혼한 부부는 한 몸을 지킴을 지적해 주셨다.³⁸⁾

1) 성경 스토리텔링에 대한 오해와 진실

Christine은 자신의 책 *Telling the Gospel through Story*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오해를 이유를 다음 몇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이야기는 동화적이고 꾸며낸 이야기, 사실이 아닌, 의심쩍고 사실과는 다른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야기는 그냥 재미 삼아 듣는 것이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심각하고 중요한 개념을 전달하는 데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둘째, 스토리텔링은 내 스타일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학교 졸업생과 전임 교회 사역자들은 일반적으로 추상적이고 조직적인 의사소통 스타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셋째, 상당수는 자신이 이야기를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넷째, 스토리텔링은 성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편견이고 사실이 아니다.³⁹⁾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것을 선호한다. Kendall F. Haven은 15개 분야에서 10만 페이지 이상의 연구조사를 통해 모든 사람은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결론을 내렸다.⁴⁰⁾ 스토리텔링은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방식이다.⁴¹⁾ 성경 스토리텔링의 유용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토리텔링은 우리에게 성경을 배우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와 배움의 열정을 증가시켜 준다.⁴²⁾ 둘째, 이야기는 동기 부여와 가치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기억하도록 보장한다.⁴³⁾ 셋째, 스토리텔링은 사람들이 성품, 가치 및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넷째, 스토리텔링은 여러 가지 성경교육 방법 중에서 아주 효과적이다. 다섯째, 스토리텔링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준다.⁴⁴⁾ 여섯째, 스토리텔링은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끼지 않고 이야기를 듣도록 해준다. 일곱째, 스토리텔링

38) I. Polkinghorne, D. E. Narrative knowing and the human science, 53.

39) Christine, *Telling the Gospel through Story*, 18–21.

40) Kendall F. Haven, *Story Proof: The Science Behind the Startling Power of Story* (Westport, Conn.: Libraries Unlimited, 2007), 4, 7.

41) Christine, *Telling the Gospel through Story*, 18–21.

42) Kendall F. Haven, *Story Proof: The Science Behind the Startling Power of Story*, 99.

43) Ibid., 67.

44) Christine, *Telling the Gospel through Story*, 23.

은 무관심자들에게도 유용한 방식이다.⁴⁵⁾ 여덟째, 스토리텔링은 커뮤니티를 만들어준다. 아홉째, 스토리텔링은 신학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준다. 열 번째, 스토리텔링은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꿀 수 있다.⁴⁶⁾ 스토리텔링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이다.⁴⁷⁾ 스토리텔링은 연습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고 완벽한 경지까지 이를 수 있다.

3) 구술문화자들과 성경 스토리텔링

Avery Willis에 의하면 세계인구의 33%는 문자로 학습하는 것을 선호지만 세계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0억의 사람들은 문자학습에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있다. 그는 읽기와 쓰기는 그 나뭇의 고유한 장점이 있지만, 구술적 방법이 진리를 전달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교회는 소통하는 데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했다. 사람들이 구어적 소통에 익숙한 데도 문자적 방식으로만 소통하려고 하는데, 만일 사람들이 복음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질 수 있다면 더욱 더 쉽게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⁴⁸⁾

이금주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구술문화자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문자로 기록된 자료가 아닌 스토리텔링 방식이 가장 적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스토리텔링을 구현할 때 암기, 속담, 드라마, 무용 등의 방식을 동시에 활용될 것을 제안했다.⁴⁹⁾ 성경 스토리텔링이란 구술적 소통과 시각적 소통의 전반적인 과정을 뜻하며, 성경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구성된 이야기식 설명과 뒤이어 진행되는 토론, 해석, 적용, 상호 책임, 드라마, 노래, 이야기의 재연⁵⁰⁾등을 포함한다.

이금주는 또한 필리핀 남부, 오리사, 인디아, 남수단에서 크리스천 사역자들이 전통적인 교육 방법으로는 학습할 수 없는 구술문화자들을 연대기적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놀라운 결과를 얻은 사례를 보고했다.⁵¹⁾ 선교사들은 오랫동안 각 민족 가운데서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 왔다. 미국 남침례교 해외선교회(IMB)는 구술문화자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연대기적 성경 스토리텔링(CBS)을 개발했다. CBS는 문맹인, 기능적 문맹인 및 준 문맹인 등과 같은 구술문화자들을 고려해서 개발한 형태이다.⁵²⁾ 이

45) Ibid., 24.

46) Ibid., 27–29.

47) Ibid., 15–17.

48) Avery Willis, 『성경 스토리텔링』(서울: 아가페북스, 2015), 56–57.

49) Kuem Ju Lee, “Bible Storying: a Recommended Strategy for Training Church Leaders in Oral Societies” Ph.D. Dissertation,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005, 43–44.

50) Avery Willis, 『성경 스토리텔링』, 26.

51) Kuem Ju Lee, “Bible Storying: a Recommended Strategy for Training Church Leaders in Oral Societies”, 124.

52) Ibid., 127–28.

들은 먼저 사람들의 세계관을 연구하고 이에 맞게 성경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커리큘럼을 조정했다. 사역자들이 커리큘럼을 완성한 다음 학생들에게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는지 시범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내용을 완전히 암기할 때까지 반복해서 들려준다. 학생들이 스스로 성경 스토리를 암송하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하도록 도전한다. 이런 방식으로 구술 문화권에서 교회 배가 운동이 일어난 것을 관찰했다.⁵³⁾ 문맹자들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경 이야기를 배우고, 심지어 교회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렇다면 스토리텔링을 위한 전략과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

4. 성경 스토리텔링을 위한 전략과 기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술 문화권에 적합한 성경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을까? 성경 스토리텔링을 구성하기 위한 전략과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 Daniel Sanchez, J. O. Terry, and LaNette W. Thompson은 사람들이 스토리텔링에 실패하는 이유는 청취자의 세계관에 적합하지 않은 이야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⁵⁴⁾ 청취자들의 세계관을 잘 파악할수록 스토리를 선택하는 데 유리하다. 우리가 선택하는 이야기와 전달하는 방식은 수신자들 개개인에 따라 달라야 한다. 한 문화나 종교적 배경 이내에서도 우리는 모든 사람의 사고체계가 같은 것은 아니다. 특히 현대 세계는 한 종교 내에서도 복잡한 신앙체계가 혼합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전략의 중요성

구술문화에서 교회 구성원들과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데에 어떤 원칙과 전략이 필요할까? Christine은 성경스토리텔링의 구성을 위해 고려할 사항들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했다. (1) 수신자들의 세계관을 고려하라. (2) 수신자의 신념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선택하라. (3)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선택하라. (4) 너무 길거나 너무 짧지 않고 적당한 분량의 이야기를 선택하라.⁵⁵⁾

이금주는 구술문화자들을 위한 제자훈련 원리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했다. (1) 종족 그룹의 모국어 사용한다. (2) 사람들의 세계관을 식별한다. (3) 사람들 사이에 적합한 보편적인 성경 진리를 찾아낸다. (4)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시도한다. (5)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할 시간과 방법을 인식한다. (6) 수신자 중심적인 메시지와 형태로 소통한다.

53) Ibid.

54) Daniel Sanchez, J. O. Terry, and LaNette W. Thompson, Bible Storying for Church Planting (Fort Worth, Tex.: Church Starting Network, 2008), 를 참조하라.

55) Christine, 48-55.



(7)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방점을 두라. (8) 여론 주도자(Opinion Leader)의 중요성을 인식하라. (9)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라. (10) 도제식 훈련과 모델링 방식을 활용하라.⁵⁶⁾

2) 성경 스토리의 구성을 위한 기술들

박인기는 교사의 수업자질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스토리텔링 기술을 다음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제시한다. 첫째는 구성적 수행 기술(Plotting Skill)에 해당하는 수행 능력인데 교사가 전달해야 할 교수 내용을 스토리텔링의 구도로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여기서 ‘번역’이란 지식이나 경험을 이해하고 수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수용자의 인식 프레임에 맞도록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한다.⁵⁷⁾

둘째는 수업의 내용뿐 아니라 ‘수업의 상황 요소’를 스토리텔링의 한 요건으로 포함하고 반영하는 기술(Connecting Storytelling Skill with Instruction Situation)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수업을 스토리텔링의 공간과 일치시키고,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이

56) Ibid., 128-39.

57) 박인기「스토리텔링과 수업기술」韓國文學論叢 59- (2011): 427.

스토리에 행위자로 참여하는 느낌을 공유하게 된다.⁵⁸⁾

셋째는 스토리텔링 수행 기술에서 이야기의 디테일을 만들어 내는 ‘디테일 변용의 기술’이다. 스토리의 특정국면을 새롭게 생성 변화시키고 그것과 연관되는 디테일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디테일 변용의 주요 기술 항목으로 인물 변용, 사건 변용, 시공간 변용, 심리적 요구에 호응하는 변용, 수용자 수준 변용, 스토리의 부분 적출 변용, 미디어 변용 등을 들었다. 유능한 교사들은 알게 모르게 이러한 변용 기술을 자신들의 수업 활동 속에서 활용한다.⁵⁹⁾

3) 목표설정과 질문의 중요성

교수·학습 과정에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할 때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지 않을 경우, 교사와 학생 모두 목표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야기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목표가 분명한 경우에 필요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이야기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스토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쉽게 모색할 수 있다. Avery Willis는 청중은 질문을 통해 자신이 들은 성경 이야기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며 질문은 가슴과 머리의 빗장을 열어주고, 손과 발을 활성화시켜 삶에 적용하게 해 준다고 말했다.⁶⁰⁾ 그는 관찰(무엇을), 해석(왜), 적용(어떻게) 세 가지 질문을 제안한다. 하나님의 진리는 스토리 안에 있는데 교사는 질문으로 그 진리를 부드럽게 열어주어, 그것이 학생들에게 선명하게 보이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좋은 질문을 활용하면 참석자들이 주석에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통찰을 얻기도 한다.⁶¹⁾

4) 성경 스토리텔링에서 포함시킬 내용들

성경 스토리텔링을 위한 기본 세트는 대략 12~20개의 이야기를 포함하며, 계산 방법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한 이야기로 구성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섯 개의 별개의 이야기로 구성할 수도 있다. 성경 스토리텔링에서 절반에서 3분의 2가량 구약에서 하는 것이 좋다. 구약성경의 이야기는 신약성경을 세우고 구주를 위한 길을 준비해 주기 때문이다. 다음은 성경 스토리 선정의 예이다.⁶²⁾

58) Ibid., 428.

59) Ibid., 429.

60) Willis, 『성경 스토리텔링』, 92.

61) Ibid., 92-93.

62) 보다 자세한 논의는 Christine, Telling the Gospel through Story를 참조하라.

(1) 구약: 창조(창세기 1-2), 타락(창세기 3), 아브라함(창세기 12-24), 출애굽과 유월절(출애굽기 1-12)

(2) 신약: 예언의 성취로 예수 탄생, 예수의 사역, 십자가, 부활

나가는 말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이야기는 모든 문화에 산재하지만, 특히 구술문화에서 더욱 폭넓게 활용된다. Bruner에 의하면 내러티브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삶과 행위를 이해하는 형식이다. 인간들은 이야기 형식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과 타인의 경험을 글 또는 말을 이용하여 이야기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다. 이 글에서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되는 구술문화자들이 자신들의 문화에 맞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의 일환인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활용, 스토리텔링을 통한 교수 학습, 성경과 스토리텔링, 성경 스토리텔링에 대한 전략과 기술 등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내러티브(서사)와 스토리텔링은 근대 학교 이전부터 교육내용과 교육 활동의 주요한 원천으로써 활용되어 왔다. 성경의 절반 이상이 이야기로 되어 있고 하나님은 당신의 진리를 대부분 이야기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에 달하는 약 40억 명이 구술문화자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문자로 기록된 자료가 아닌 스토리텔링 방식이 가장 적합한 수단이며, 스토리텔링과 함께 구현할 때 암기, 속담, 드라마, 무용 등의 방식을 동시에 활용할 때 효과적이다. 구술문화자들을 위해 성경 스토리텔링을 구상할 때 수신자들의 세계관을 고려하고, 수신자의 가치체계에 도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적당한 분량의 이야기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토리텔링을 위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설정과 스토리텔링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독교 선교의 목표는 복음전파를 위한 적합한 방법을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민족들 가운데에 교회들이 설립되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선교사들이 구술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못했다. 다행히도 근래에 미국의 남침례교 해외선교회(IMB) 소속 선교사들을 비롯한 몇몇 선교단체에서 구술문화자들을 위한 복음 전도와 지도자 훈련을 위한 스토리텔링 방법을 개발해서 활용함으로써 여러 나라에서 좋은 결과들을 얻고 있다. 구술문화권 사역자들이 스토리텔링을 통한 전도와 제자훈련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전 세계 3분의 2에 해당하는 구술문화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진다면 얼마나 보람되고 감사한 일일까?

세네갈 선교사로 살아온 날들에 대한 반성

| 이화섭 선교사(FMB/세네갈)



2002년 1월에 처음 세네갈 땅을 밟았습니다. 답사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유월에 FMB 첫 아프리카 선교사로 세네갈에 들어왔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사역에 대한 반성

첫 몇 년간 세네갈 사회와 문화에 적응해가는 과정도 물론 쉽지 않았지만, 사역의 방향을 분명하게 잡지 못한 점이 늘 불만스러웠습니다. 여러 단체, 여러 선교사들의 조언을 듣고, 그들의 사역 현장들도 돌아보며, 방향을 잡아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 선교사들도 있었고, 미국 남침례교 선교사들도 있었는데, 누구에게서도 확신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세네갈이 오랫동안 선교의 수고를 했지만, 열매가 거의 없는 무슬림의 땅으로, 그리고, 현재도 많은 서구 선교사들과 소수의 한국 선교사들이 열악한 환경을 견뎌가며, 나름 다양한 노력과 수고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빈약한 결과 앞에 다들 지치고 힘들어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첫 삼년간은 IMB의 제안대로 전형적인 무슬림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가 들어가 본 적 없거나, 전혀 개종자가 없는 주요 종족 마을로 들어가서 함께 살며 선교적 돌파를 이루고자 하



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저희보다 일 년 후에 세네갈에 입국한 FMB 선교사 세 가정도, 지역은 다르게 정했지만, 다들 저희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적은 무리를 얻기도 했지만, 많은 이들 특히나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가는 세네갈의 현재 상황에서, 인구 수(數)로 따져보면 다 합쳐 봐도 얼마 되지 않는, 지극히 폐쇄적인 무슬림 마을에서 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지도 의심스러웠지만, 그렇다 한들 그것이 세네갈 전체에, 과연 어떠한 선교적 파급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형상으로는 미전도 종족 선교의 최전방에서 교과서적인 선교 사역을 실천하고 있었는데, 내적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회의감만 커져 갔습니다. 오래지 않아 아내의 유산과 동료 선교사의 죽음 등이 겹치면서 만 삼년 만에 철수하다시피 세네갈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돌아와서는 파송교회에서 선교보고 한번 하지 못한 채, 실패한 선교사로 낙인이 찍혔고, 결국 몇 개월간의 갈등 끝에 파송 교회와의 관계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럽고, 외로운 시간을 마주해야했습니다. 세네갈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로서의 사명감마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을 것 같던 그 끝 점에서 주님은 저희를 강하게 붙들어주셨습니다. 주님 외에는 바라볼 이 없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두 교회가 저희의 파송교회가 되어주셨고, 더욱 놀랍게도 저희는 다시 세네갈로 들어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세네갈에 들어간 것이 특유의 열심과 다소간의 영웅심이 작용한 결과였었다면, 다시 세네갈로 들어간 2007년은 순종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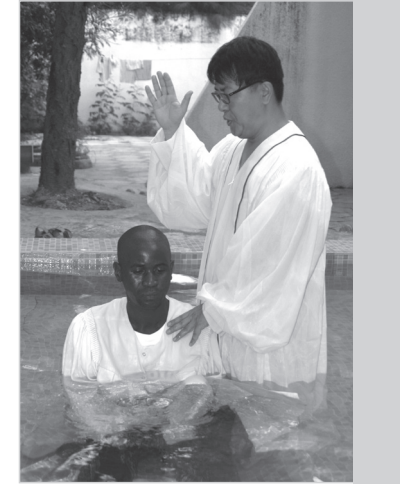
수도 다카르에 머물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며, 가능한 사역의 길들을 찾아보고자 애를 태웠습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때로는 오해도 받아 가면서, 한 영혼이라도 얻고 싶다는 마음에서, 의미 있는 선교

사역의 한 축이라도 끼고 싶다는 갈망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도전하기를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주께서 공활을 베풀어주셨습니다. 무슬림 일대일 전도와 비공개 사역에서 먼저 자그마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부터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도 개척해서, 협력 선교라는 것을 배워가며 10년을 섬겼습니다. 그 동안에 세네갈 침례교회와 브라질 베다니 미션과의 협력 사역이 결실을 맺었고, 특히 세네갈 침례교회와의 협력 선교 사역들은 점점 더 중요하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2016년부터 3년간은 미국 한인 침례교회들과의 협력으로 ATI(America Theology Institut)라는 이동식 무료 신학 과정을 설립해서, 30여명의 목회자들과 예비 사역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팀 사역에 대한 꿈이 있어서, 한인교회 사역을 구심점으로 해서 FMB 선교사 한 가정과 감리교단 선교사 한 가정과 함께 해 보았지만, 기대만큼 좋은 모양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 그중한 가정이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사역을 이양 받아서 잘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사역이 열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는 것은 저희에게 너무나 벅찬 감격이었지만, 한편으론 과도한 긴장과 스트레스 상황들을 끊임없이 견뎌 내야하는 과정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2018년에 잠깐 들렀던 한국에서의 안식월 기간 중 생각지 못했던 갑상선 암이 발견되었고,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 후 병원에 누워있었던 그 시간에, 저도, 제 아내 윤경애 선교사도 새로운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던 수년간의 선교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가 왔음을 느꼈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지 뚜렷이 알 수는 없었지만, 늘 그랬듯이 마음의 힘을 빼고 인도하심에 맡길 따름이었습니다. 2019년에 한인교회 사역과 신학교 사역을 이양했습니다. 작년엔 처음으로 1년간의



안식년을 가지며, 선교사업그레이드훈련(MUT) 과정에도 참가했습니다. 1년 가까이 떨어져 있는 세네갈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의 성장 소식과 일곱 번째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복음 세미나 준비 소식이 들려오고, 재작년부터 시작된 선교지원센터 건축도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그 땅을 향해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반성

선교지에서 무슨 일을, 얼마나 열심히, 많이 하였느냐하는 평가보다, 저의 삶과 인격과 신앙이 얼마나 선교지 교회와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확증하며, 예수님을 생각나게 했었느냐 하는 평가가 훨씬 중요할 것 같은 데, 그러한 점에서 매우 부끄럽고, 초조합니다. 몇 년 전, 11년간을 양육하며, 영적 리더로 세우고자 애썼던 무슬림 배경의 한 형제가 저를 떠나갔을 때, 배신으로만 생각하며, 오랫동안 그를 비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그 형제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했었는지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선교사로서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누렸었는데, 지금 두 아들을 대학 진학과 함께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FMB 세네갈 선교사로 살아온 시간들이 만 19년을 향해가고 있고, 저희 첫째 아들과 세네갈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제 자녀들의 눈에 비친 저의 삶은 어떠했을 지,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지금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있는 것인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수년 전 천국에 가신 니제르의 임준표 선교사님이 2007년 파리에서 있었던 서부 아프리카 불어권 선교사 모임에서 하셨던 말씀이 문득 생각납니다. 서부 아프리카 한국 선교 역사에서 최

고참 중 한 분이셨던 그 분은 그 모임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선교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선교사의 삶을 향해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은 항상 처음 자리를 향하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네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 조혜경 (제31기 (황금기)선교훈련)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해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제 31차 시니어 선교훈련의 7주간 훈련의 딱 중간 허리인 6월 24일, 찬양을 힘차게 부르며 아침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었다. 그 날 따라 감동적으로 1절, 2절을 부르는 가운데, 이 찬양 속에 담대히 싸우고 있는 멋진 십자가 병사가 바로 ‘나’로 그려졌다. 아직 반도 채 지나지 않은 시니어 훈련이었지만 그동안의 감동적인 강의와 시간시간 넘치는 은혜로 나는 젊은 선교사처럼 들떠 있었다.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스스로 대견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잠시, 2절을 다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초라한 한 시니어를 깨닫게 하셨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아직도 이기적이고 차갑고, 비판적이고 남을 품어줄 줄 모르는,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다. 나의 그런 자량이 전혀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신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런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내가 어떻게 선교지의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을까요?

사실 훈련원에 들어온 이후로 함께 하는 우리 예비 선교사님들과 매일 얼굴만 부딪히면 고백하는 말이 있었다. “오늘도 강의를 너무 좋네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배우게 되는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네요~”였다. 비록 남들에게는 실버 또는 시니어라고 불리는 늦은 나이지만, 고대하던 첫 시니어 선교훈련을 통하여 평소에 이름만 듣던 존경하는 강사님들로부터 매일 소중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다. 또 그런 강의를 들으며 자신 없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까지 생겼다. 비록 쉽지 않을 선교지에서의 사역일 수도 있지만, 비전과 소명을 새롭게 하며 조심스럽게 늦은 꿈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초여름을 맞이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캠퍼스는 너무나 푸르렀고, 학생들이 하교를 한 후의 빈 캠퍼스는 우리의 정원과 같았다. 저녁식사를 마친 후 남편과 그 날의 은혜를 나누며 여유 있게 캠퍼스를 걸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주를 위해 일어난 십자가 군병은 나의 조급함과 환상,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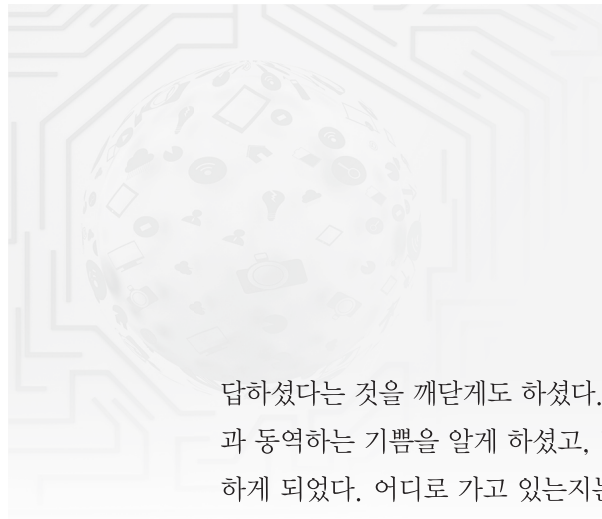


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부끄러움 가운데 잦아드는 목소리로 간신히 3절을 부르는데 갑자기 주님의 은혜가 쏟아졌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해 일어나 네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네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을 믿으라고! 갑자기 주님이 옆에 함께 하심을 느끼고 오열하듯 감사를 드렸다. 주님께서는 그런 나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아시고 괜찮다고, 위로를 해 주셨다. 아직 내 것이 되지 않은 지식과 부족하기만한 나를 의지해서 주의 일을 해 낼 수 있다는 착각을 했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건 정말 위에서부터 부어진 그 분의 한량없는 은혜였다. 나의 착각을 한 순간에 벗겨 주시는 말씀이었다. 이것이 바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긍휼이며,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의 가사는 나로 더욱 주님 안에만 소망을 갖게 하신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해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 하리라” 할렐루야~

생각해 보면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의 고백이다.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며 세례를 받던 날, 아무도 모르게 마음 속으로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드렸던 것도 지금 생각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무엇을 알고 한 말이었던가?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소망을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것이 내 힘이었던가? 28년이 되도록 나는 그 서원을 마음 속에 감추고 혼자 접었다 폈다만 했는데, 이제 이렇게 주님은 이루고 계시지 않은가? 한 번은 어떤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선교를 나가고 싶다고 말하자 대뜸 “선교가 아무나 하는 겁니까? 그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예요”라는 말을 듣기도 했었다. 나는 그 말에 너무나 부끄럽고 풀이 죽었지만 주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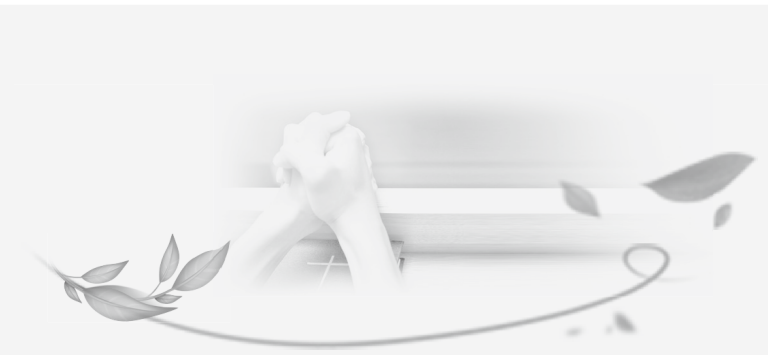
남편과 함께한 25년의 중국생활은 우리의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과 예비하심의 시간이었다. 세상으로부터의 출애굽이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뜨겁게 예배하는 본격적인 신앙생활의 시작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선교지에서 교회의 많은 사역들은 단기 선교의 연속이나 마찬가지였고, 언어와 문화에도 저절로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2008년에는 한 학기동안 몽골의 국제대학교에 단기 선교를 나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기도응답을 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깊이 누리게 하신 시간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서원을 기억하고 계시며 그에 응



답하셨다는 것을 깨닫게도 하셨다. 그 이후에 기독교를 섬긴 기간을 통하여는 남편과 동역하는 기쁨을 알게 하였고, 남편과 나는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게 되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부부는 주 안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그 이후로 이 시니어 선교훈련을 받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면 정말 놀랍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 그대로이다. 신학공부를 하고픈 마음을 주셔서 기도 가운데 대만으로 가게 하사 공부하게 하였고, 2020년 코로나 상황으로 갑자기 들어오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잠시 혼란스러웠다. 내년이면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나이인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국에서 머무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다. 가정교회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교회에 출석하게 하시고 좋은 목장식구들을 만나게 하셨으며,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시니어 선교훈련을 받게 하신 것이다. 세계선교훈련원에서 처음으로 시니어 선교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그 혜택을 받게 하신 것이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훈련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훈련을 통해 우리를 빚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앞부분에 고백한 것처럼 이 훈련을 통해 정말 깨닫게 하시는 것은 외적 훈련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부족한 나를 보게 하사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그럴까? 정말 하루 하루가 구름에 떠 있는 것처럼 소중하고 감사하다. 나에 대해서는 점점 더 기대를 접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나날이 커가게 하시니 이 얼마나 신기하고 기막힌 훈련인가? 존경하는 강사님들로부터의 깨우침, 함께 하는 훌륭한 선교사님들과의 나눔과 교제와 사랑, 그리고 함께 하는 식사와 체조까지...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시니어 선교사들을 쓰시려고 하신다면 과연 어떤 부분을 쓰시려고 하는 것일까? 단지 능력있고 젊은 선교사들이 모자라서만은 아닐 것이다. 여러가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힘이 부족함을 알고 주를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다른 어떤 것보다 자신을 내려 놓는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라고 하시는 것 아닐까? 지식도 능력도 체력도 다 부족하지만 누군가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길 자가 필요하다면 그것이 시니어 선교사들의 몫이 아닐까? 그



렇게 되기를 조심스럽게 소망한다. 이제 남은 훈련의 기간을 달려가며, 아쉽지만 또 영광스런 졸업을 바라보며, 이 훈련이 있게 하신 하나님, 이 훈련은 섬기는 모든 분들, 함께 이 훈련을 받는 모든 예비 선교사님들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린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모든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또 한 걸음 전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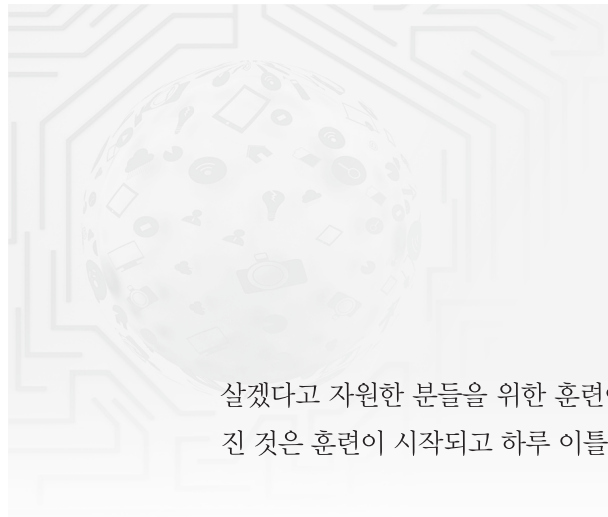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 안성일 (제31기 (황금기)선교훈련)

나는 미국 West Grand Canyon에 있는 American Native Indian, Hualapai Tribe에서 태권도 선교를 하고 있으며 4년 전부터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사역하고 있는 태권도 선교사들에게 총체적태권도선교라는 태권도선교신학을 지도하고 있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사역하면서 특별히 사역에 문제의식을 가져본 적이 없다. 다만 앞으로 태권도선교개발원을 이끌어 가려면 선교훈련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을 뿐이다.

지난 해 늦가을, 한국을 방문하여 태권도 선교 상황을 살펴보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지내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그 당시 이현모 교수님께서 나의 비전을 들으시고 시니어선교사훈련을 추천해 주셨다. 큰 기대는 없었으나 존경하는 교수님의 추천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등록을 결정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나는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었으나 그것을 시니어선교훈련을 통해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시니어선교훈련은 은퇴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여생을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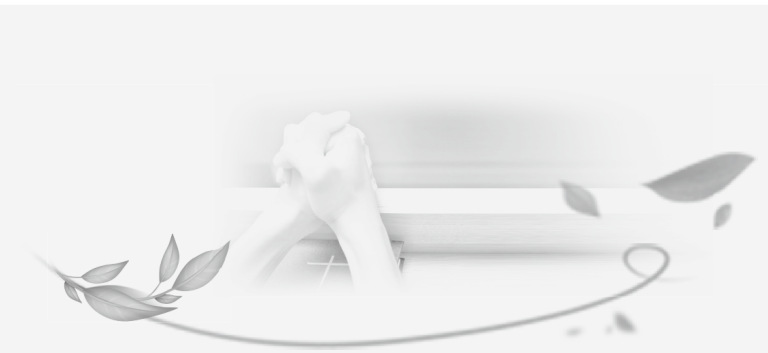
살겠다고 자원한 분들을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의 잘못된 생각이 무너진 것은 훈련이 시작되고 하루 이틀이면 충분했다.

훈련에 참석한 모든 시니어 훈련생들은 시니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한결같이 열정이 있었다. 7주간 함께 교육을 받으며 훈련원의 교육 내용을 통해서 배우는 것과 함께 서로의 인생 경험들과 마음에 품고 있는 선교의 비전을 통해 배우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잠언의 말씀을 경험했다.

또한 큰 깨달음은, 훈련 내용보다 훈련원 Staff들과 교수님들의 섬기는 모습이었다. 그동안 다양한 훈련을 받았지만 그 훈련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나이와 신분을 떠나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분명한 구분이었다. 그러나 세계선교훈련원에서 느낀 점은, 강단이 훈련생들의 자리보다 약간 높은 것은 훈련생들이 앞에 있는 사람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단 한 가지 이유 밖에는 없다는 것을 느꼈다. 오히려 훈련생들을 섬기시는 교수님들과 Staff들의 모습은 강단이 훈련생들의 자리보다 더 낮아보이는 느낌이었다.

세계선교훈련원의 교육을 받으며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며 지내온 것이 무지의 소산이라는 사실을 실감했고 하루하루 배울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달았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지닌 교수님들은 선교사로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들을 겸손과 섬김이라는 아름다운 그릇에 담아서 훈련생들에게 최선을 다해 전해 주셨다. 그리고 교수님들의 강의는 교실에서 끝나지 않았다. 학생들을 가르치느라고 시간에 쫓기면서도 훈련생들을 위해서는 넉넉하고 느긋하게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셨다. 내게는 교육을 받으며 내용과 태도를 함께 배우는 귀한 시간들이었다.

가장 감명 깊은 것은 세계선교훈련원의 선교에 대한 태도였다. 나는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살고 있고, 침례교가 아닌 장로교 출신이다. 더구나 훈련을 받고 파송을 준비하는 목사가 아닌 태권도 선교사들을 지도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세계선교훈련원의 교육 방향에서 벗어난 상황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원에서는 동일한 기



회와 관심을 기울여 주었다. 더 나아가 내가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기회가 있을 때 Mentor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이병문 부원장님의 말씀은 나의 마음을 든든하게 할 뿐 아니라 세계선교훈련원이 침례교단 훈련원이라는 경계를 너머 오직 하나님의 선교에만 집중하는 성숙한 곳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계속되는 교육과정들을 통해 그동안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던 선교에 대한 내 자신의 지식과 경험들이 통합되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모든 교육 과정이 선교신학과 현장이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는 실제적인 교육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7주간 동안 훈련생들과 항상 함께하신 이병문 부원장님의 오랜 선교 경험으로부터 쌓여진 선교현장 중심의 가르침과 사모님의 섬세하고 친근한 섬겨 주심, 그리고 차지혜 실장님, 듬직한 하충만 간사님과 귀여운 사랑 간사님의 헌신적인 모습은 훈련원을 섬기는 사람들의 Role Model이 되어 주셨다.

훈련을 마친 후에는 태권도 선교사들이 태권도를 지난 4-50년 동안 선교의 발판으로만 사용한 것에서 벗어나 실제로 선교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총체적태권도선교를 가르칠 태권도선교 전문대학원 과정을 개설하여 집중적으로 훈련하려고 한다.

또한 전국에 있는 크리스천 태권도 사범들이 태권도장 안에 복음적인 문화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기독교 가치관으로 태권도 정신(임시: 나를 이김으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라-국기원 표준 정신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음)을 실천하도록 함으로 예수님을 알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삶을 훈련 시켜서 수련생들 뿐 아니라 그들의 가정에까지 복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려고 한다. 그래서 크리스천 태권도 사범들이 선교적으로 태권도장을 경영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려고 한다.

끝으로, 이 모든 교육 과정은 어리석은 내가 바라던 항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항구로 인도함을 받는 훈련이었음을 고백하며 세계선교훈련원을 세워 주시고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31기 선교사 훈련생 소개 및 기도제목

● 김동현 / 박경미



- 파송국가 : 미정
- 파송교회 : 돈암그리스도의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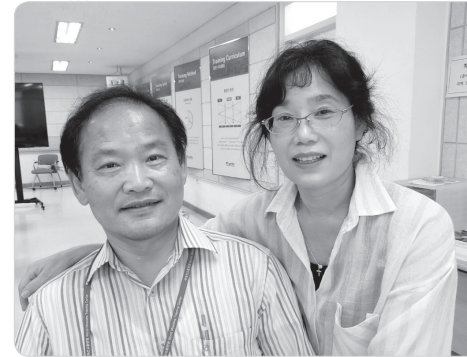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이사야 52:7)

주님의 은혜를 받아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여러가지로 준비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새로운 사역을 위해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 기도제목

1. 말씀과 기도의 균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2.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3. 새로운 선교지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을 수 있도록
4. 육신의 강건함으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 김영배 / 최선희



- 파송국가 : 이스라엘
- 파송교회 : 미정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선교훈련원에서 훈련받은 김영배, 최선희입니다. 목회만 해서 훈련이 익숙하진 않지만, 선교지의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을 위해 기도하며 훈련 받고 있습니다. 훈련 이후 파송과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 기도제목

1. 현지 답사에 필요한 재정과 환경이 열리도록
2. 현지인의 세계관과 문화 생활, 가치관을 잘 알도록
3. 국내 사역의 아름다운 마무리와 파송교회 선정을 위해
4.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 받도록



● 박기석



- 파송국가 : 캄보디아
- 파송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2007년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2014년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서 홀로 7년을 사역하던 중, 31기 훈련을 통해 FMB 선교사로 재파송을 받을 수 있는 꿈 같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지난 사역의 부족한 것들을 깨닫고, 선교지에 다시 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훈련 중에 배운 것들을 가지고, 2기 선교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 기도제목

1. 선교사로 처음 부름을 받았던 때처럼 오직 복음만 전하는 선교사, 하나님만 의지하는 선교사가 되도록
2. 캄보디아 사람들을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 박대철 / 손명숙



- 파송국가: 키르기스스탄
- 파송교회: 늘사랑교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하라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합니다. 토속적 무슬림에 갇힌 키르의 영혼을 품고 선교 거점 센터로 IT 전문인 기술 학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제자 양육과 가정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케인대학 대학생 청년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하여 연결점을 찾고 어려운 학생들의 학사 공동체 모임 안에서 주님의 제자삼는 사역을 하려고합니다.

■ 기도제목

1. 갈렙과 사라가 7주간 건강하게 선교훈련을 잘 받고 선교사 소명과 사명을 재 확인하며 선교사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준비가 되도록
2. 선교사의 영성 재무장을 위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도록
3. 두 자녀가 믿음의 짝을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4. 이슬람과 민속 종교적인 삶에 찌든 키르 민족이 참 진리에 노출되어 하나님을 만날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준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 손명배 / 이흥섭



- 파송국가: 캄보디아
- 파송교회: 은혜드림교회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딤후 4:3-5)

저희 부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WMTC에서 선교훈련을 받고 캄보디아로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 기도제목

1. 캄보디아어를 빨리 습득하여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2. 캄보디아에 빨리 들어갈 수 있게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3. 좋은 팀사역을 할 수 있게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 안성일 / 이미경



- 파송국가: 국내사역
- 파송기관: 태권도선교개발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Ask of me, and I will surely give the nations as your inheritance. And the very ends of the earth as your possession)”

총체적태권도선교를 시작하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전세계 모든 태권도 선교사들과 많은 크리스천 태권도 사범, 지도자들을 통해 태권도장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수련해가는 총체적태권도선교가 이 세대에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 기도제목

1. 태권도 선교회들의 화해와 연합을 위하여
2. 태권도선교전문대학원 과정 설립을 위하여
3. 크리스천 태권도 사범/지도자들 모임을 위한 지역 별 조직 편성을 위하여
4. 총체적태권도선교신학 정립과 훈련을 위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위하여

● 유원일 / 조혜경



- 파송국가: 중화권(대만, 중국)
- 파송교회: 중국 광저우 한인교회, 판교 꿈꾸는 교회

“불지여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요한계시록 3:8)

니하오마~

할렐루야! 저희 부부는 중국과 대만에서 27년반을 살면서 중국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늦은 나이지만 선교사로 남은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이지만,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대로 추수할 일꾼들이 중국교회임을 믿고 중국 가정교회가 세계선교의 중심이 되는 날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협력하여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제목

1.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깊이 깨달어지도록
2. 기도 가운데 대만 내의 파송지에 대한 구체적 인도하심이 있도록
3. 선교 훈련이 지식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4. 주의 인도하심으로 논문 작성을 잘 하게 하셔서 학업을 잘 마무리 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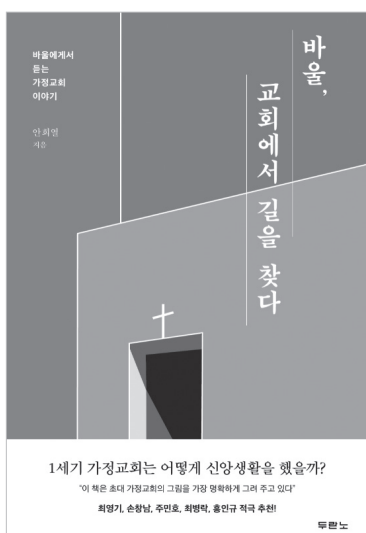
❁ 사진으로 보는 ❁
31기 훈련이야기 ❁



「바울에게서 듣는 가정교회 이야기」

바울, 교회에서 길을 찾다

■ 저 자 : 안희열 ■ 출판사 : 두란노 ■ 발행일 : 2020. 03. 17 ■ 페이지 : 총 264쪽



“초대 가정교회의 그림을 가장 명확하게 그려낸 책”

코로나 19로 한국 교회는 대내외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비대면 예배로 인한 공동체 붕괴의 두려움과 그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로 인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경의 가르침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이루고자 했던 신약 교회, 즉 가정교회를 통해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신약 교회 역시 1세기 때 로마의 박해와 사회적 문제(전염병)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신약 교회의 모태인 가정교회가 그 돌파구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대표적으로 마리아의 집, 루디아의 집,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 그리고 빌레몬의 집 등을 통해 암울한 시기에도 복음이 싹트기 시작했고, 기독교

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신하기까지 했던 로마가 훗날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으로 전 유럽에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신약 교회, 즉 가정교회를 통해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바로 서고 불신이 아닌 확신의 대상으로 자리할 수 있을지를 성경과 역사적 고증을 통해 이야기한다. 그 핵심은 1세기 신약 교회의 3가지 선교 정신으로, 첫째는, 교회의 성경적 DNA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부름 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뜻하는 것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며, 따라서 사람의 영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원형 교회의 선교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다. 1세기에 세워진, 예루살렘교회, 안디옥교회, 고린도교회, 로마교회 등을 통해 각 교회별로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이를 이겨냈던 선교의 정신을 깨닫게 한다. 셋째는, 신약 교회의 선교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다. 회당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즉 삶을 통해 신앙을 드러냄으로 정체된 신앙이 아닌 살아서 역동하는 신앙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이 책에서는 이 같은 내용들이 단지 이론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1세기 신약 교회의 선교 정신으로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정착한 현존하는 대표적인 교회들을 소개함으로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실제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출처 : 두란노, '신간 보도자료', 2021년 3월

■ 2021 침례교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온라인 연합캠프

매년 다음세대 부흥과 선교 헌신자들을 일으키기 위해 열린 BT캠프가 올해에는 총회 주최, 다음세대부흥위원회의 주관으로, BT 및 다른 기관은 모두 협력으로 해서 '2021 침례교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온라인 연합캠프'라는 이름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 청년캠프 : 21년 8월 1~3일

• 청소년캠프 : 21년 8월 4~6일

캠프현장은 침례신학대학교 대강당이며, 유튜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티비와 비티티비와 줌으로 실시간 송출됩니다.

■ FMB선교지도자 전략회의 (지부장 회의)

FMB는 750여명의 선교사들이 64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역 커뮤니티와 행정관리를 위해서 16개 지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9월에 각 지부의 지부장들이 모여 지부의 사역들을 나누고 FMB현안과 앞으로 진행할 사역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 일시 : 21년 10월 4~6일

■ FMB 포럼

올해 3회째를 맞고 있는 FMB포럼에서는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며 세계선교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비전2030을 선언하는 시간을 갖게됩니다 파송교회 목사님들과 관심있는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 주제 : 비전2030

• 일시 : 21년 10월 11~12일

• 장소 : 대전 계룡스파텔

■ 이슬람 선교전략 세미나

포스트 팬데믹 상황속에서의 이슬람선교전략이라는 주제로 여러 전문가들과 선교사들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이슬람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초청합니다.

• 일시 : 21년 10월 19~22일

• 장소 : WMTC

• 현장 50여명과 온라인으로 진행





선교사 훈련 안내

2021년 하반기에는 30기 장단기 선교사훈련, 선교사 업그레이드 훈련이 각각 진행됩니다. 장단기 선교사훈련은 선교사 후보생들이 인성, 타문화이해, 사역 기술 등의 훈련을 통해 사역과 삶에 균형을 갖춘 건강한 선교사가 되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며, 선교사 업그레이드 훈련은 현장 선교사들이 지난 사역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국제 사회 환경과 선교 환경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30기 장단기 선교사훈련 (신임선교사 훈련, Missionary Pre-field training)

- 훈련기간 : 2021년 8월 3일 ~ 10월 14일 (약 12주)
 - 훈련대상 : FMB 소속 장단기 선교사 후보생, 타 단체 소속 장단기 선교사 후보생
 - 훈련내용 : 공동생활, 영성과 인성, 전문상담, 타문화 이해, 선교학, 사역 기술, 선교 실제 등
- 30기 장단기 선교사 훈련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2021 선교사 업그레이드 훈련 (Missionary Up-grade Training)

- 훈련기간 : 2021년 11월 1일 ~ 11월 26일(4주간)
- 훈련대상 : 사역 10년 차 이상 현직 선교사
- 훈련내용 : 디브리핑, 전문상담, 사역점검, 전문 강의 등

문의 | 침례교 해외선교회(02-2619-2202), 세계선교훈련원(042-828-3371)



1. 인투미션 선교학교란?

인투미션(in2mission)은 지역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 학교'입니다. 각 교회가 선교를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선교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제적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현직 선교사 및 각계의 선교 전문가들의 다양한 강의를 통해 선교이론을 배우고, 생동감 넘치는 선교 현장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눔으로써, 헌신된 선교 일꾼들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in2mission의 단어적 의미 : 지역교회와 평신도들이 선교(mission)에 투입(into)되도록 동원하는 선교학교로서, '선교에 빠지다. 선교에 잠기다. 선교 속으로'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숫자 '2'는 지역교회와 선교라는 두 개념을 의미하며, 인투미션 선교학교가 이 둘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2. 인투미션 진행안내

- 인투미션 선교학교 : 선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는 '선교 입문과정'
 - 기간 : 9. 1 ~ 10. 20 (8주)
 - 대상 : 지역교회 성도, 신학생, 선교 관심자 및 헌신자, 사역자 등
 - 진행 : 온라인 강의 + 과제물(강의 연구문제, 보고서)
- 인투미션 선교학 개론 :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선교 이론교육'
 - 기간 : 6. 29 ~ 9. 7 (12주)
 - 대상 : 지역교회 성도, 신학생, 선교 관심자 및 헌신자, 사역자 등
 - 진행 : 이현모 교수 전담 강의 + 강의 소감문
- 인투미션 선교위원 과정 : 선교위원 및 교회 내 선교 헌신자들을 위한 '선교 실무교육'
 - 기간 : 9. 1 ~ 10. 13 (7주)
 - 대상 : 교회 선교위원, 교회 내 선교 헌신자, 사역자 등
 - 진행 : 강의 + 소그룹 활동

▶ 2021년 인투미션 전과정은 웨비나(온라인)로 진행됩니다.

3. 수료 혜택

- 침례교 해외선교회(FMB)와 세계선교훈련원(WMTC) 공식 수료증 발부
- 침례교 해외선교회 "인턴선교사" 자격 부여(6개월 ~ 1년)
- 침례교 해외선교회 장단기 선교사 시취 시 1순위로 허입

■ 문의 : 세계선교훈련원(WMTC) Tel. 042-828-3371

기관별 기도제목

■ 침례교해외선교회(FMB)

– 주민호, 신재주, 박경우, 민숙경, 구은지, 조대욱,
박 란, 지영서

1. 64개국 754명의 선교사들이 코로나19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믿음과 성경이 충만한 가운데 사역하며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2. 비전 2030이 수립되는 과정 가운데 선교사들의 마음이 하나되게 하시고 비전 2030을 함께 품고 하나님을 기쁘게하는 FMB가 되도록.
3. 본부 스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효과적인 멤버케어와 지원을 할 수 있는 본부가 되도록.



■ 선교전략연구개발원(SRDC)

– 이금주, 김남준

1. 8월 5일 전략 연구개발원 연구원 전략 회의를 통해서 FMB 전략이 주님 뜻대로 세워지도록.
2. FMB 선교사들의 사역에 든든한 동역자가 되도록.
3. 10월에 있을 “FMB Flex 버킷하자 3기생” 교육을 위해서.
4. 연구원을 지키는 이금주 원장과 김남준 간사가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 세계선교훈련원(WMTC)

– 유관재, 이병문, 차지혜, 김사랑, 하충만

1. 31기 선교사훈련생들의 선교지 파송과 정착, 적응을 잘하도록.
2. 8월 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행되는 30기 장단기선교사 훈련이 잘 시작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3. 하반기 인투미션웨비나(선교학교, 선교학개론, 선교위원과정)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유익한 선교교육이 될 수 있도록.
4. 해외선교회와 훈련원의 모든 스텝들이 서로 하나되어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함께 선교를 위해 동역할 수 있도록.

